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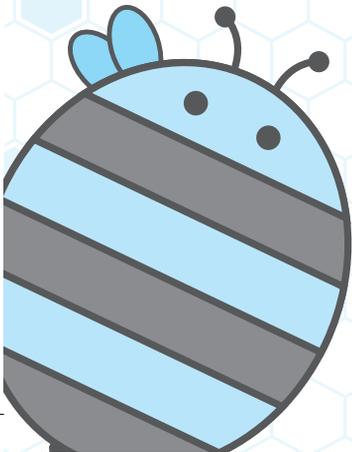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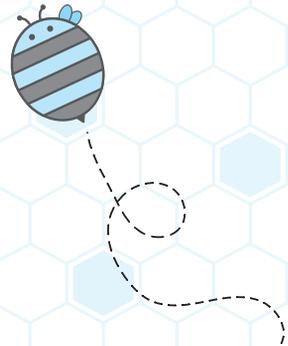
2022 박문각 공무원 가이드북

합격 꿀팁

“

학원·인강 선택법
과목별 공부방법
합격플래너 활용법
실전 노트정리법
생생한 합격수기

”



PMG 박문각

2022 공무원 가이드북 박문각 공무원 합격꿀팁

초판인쇄 2021년 10월 15일
초판발행 2021년 10월 20일

지 은 이 PMG 수험전략연구소
펴 낸 이 박 용
펴 낸 곳 (주)박문각출판
등 록 2015. 4. 29. 제2015-000104호
주 소 06654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83 서경 B/D 4층
대표전화 (02)6466-7202
팩 스 (02)584-2927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서는 비매품이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6704-3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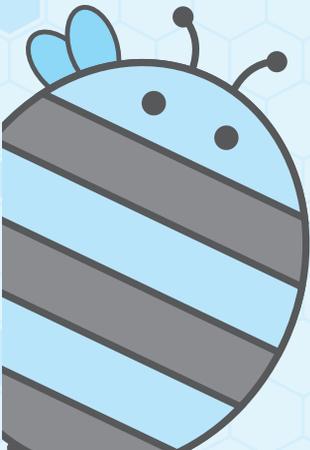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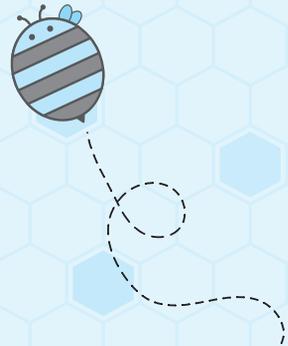
2022 박문각 공무원 가이드북

합격 꿀팁

“

학원·인강 선택법
과목별 공부방법
합격플래너 활용법
실전 노트정리법
생생한 합격수기

”



PMG 박문각

머리말

Preface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굳이 통계청 자료를 뒤적이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권하고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도 바로 공무원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요?

해마다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합니다. 선망하는 직업인 만큼 공무원의 인기는 높고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이제 막 수험 생활에 뛰어들든 공무원 수험생 신분으로, 정글 같은 수험가 한복판에서 그 출발선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합격을 위한 수험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생택쥐페리는 말했습니다.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무엇인가 이루고자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진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본격적인 수험 생활에 앞서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수험 계획을 세운다면, 공무원 합격의 꿈을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자신과의 외롭고 긴 싸움의 출발선에 선 수험생의 동반자가 되어, 따뜻하고 객관적인 조언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전략에 동참하고 싶은 바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합격의 꿈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학원이나 인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아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 과목별 공부 방법, 합격 플래너 활용법과 노트 정리법에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합격 플래너의 활용법과 공부법을 참조하여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했던 뽀뽀 운동을 기억할 것입니다.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멀리, 높이 도약해야 합니다. 이제 구름판을 힘차게 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구름판을 힘차게 디디고 앞에 놓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쁨의 순간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PMG 수험전략연구소 드림



이 책은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공무원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출간일 이후로 변경된 사항은 반영하지 못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Contents

I

공무원 시험 들여다보기

1. 공무원 시험 열풍, 이유는? · 11
 - (1) 응시 연령 제한 폐지,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11
 - (2) 직업 선호 조사 1위 공무원, 그 이유는? · 12
 - (3) 평범한 수험생이 합격한다 · 16
2. 공무원이란? · 17
 - (1) 공무원의 유형 · 17
 - (2) 공무원이 하는 일 · 19
 - (3) 공무원의 의무 · 23

II

공무원 시험 파고들기

1. 공무원 시험 개요 · 25
 - (1) 국가직 공무원/지방직·서울시 공무원 · 25
 - (2) 공무원 채용시험의 종류 · 25
 - (3)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기관 · 26
 - (4) 시험 공고 · 28
 - (5) 시험 절차 및 개요 · 28
2. 응시 자격 · 30
 - (1) 응시 결격 사유 · 30
 -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 · 32
 - (3) 학력 및 경력 · 33
 - (4) 응시 연령 · 33
 - (5)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33
 - (6) 신체검사 · 34
3.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모집제 · 35
 - (1) 임용 예정 기관·지역별 구분모집제 · 35
 - (2) 장애인 구분모집제 · 37
 - (3)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 38
 - (4)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 39
 - (5)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 41



수험생이 자주 하는 질문 FAQ · 44

4. 가산점 제도 · 46

- (1) 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 제도 · 47
- (2) 의사상자 가산점 제도 · 47
-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48

5. 개별 공무원 시험 안내 · 49

- (1)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49
- (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54
- (3) 경찰공무원 · 59
- (4) 소방공무원 · 64
- (5) 입법공무원 · 70
- (6) 사법공무원 · 72
- (7) 우정직 공무원 · 72

6. 최근 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사항 · 73

- (1) 9급 국가직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 73
- (2) 공채시험(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추가 합격자 결정 제도 · 76
- (3)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개선 및 추가 면접 실시 · 78
- (4)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제 · 80
- (5) 7·9급 공채 가산 특전 신청 및 적용 방식 개선 · 81
- (6) 응시자 준수 사항 변경 · 81
- (7) 인사조직 직류 신설, 직렬 명칭 및 시험 과목 변경 · 82
- (8) 합격자 명단 발표 방식 변경 · 82
- (9)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 82
- (10) 지방직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통합 출제 · 83
- (11) 2021년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 84
- (12) 2021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 84
- (13) 2022년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 85
- (14) 2022년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 85
- (15) 2023년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응시 자격 변경 · 85

차례

Contents

III

공무원 시험 똑똑하게 준비하기

1. 학원 200% 활용하기 • 87
 - (1) 학원 강의 수강, 꼭 필요할까? • 87
 - (2) 학원 강의의 득과 실 • 88
 - (3) 학원 선택 방법 • 90
 - (4) 학원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 91

2. 인터넷 강의 제대로 듣기 • 93

- (1) 인강의 필요성 • 93
- (2) 인강 선택법 • 95
- (3) 인강 사용법 • 98

실전을 미리 경험하는 모의고사 • 100

3. 과목별 공부 방법 • 102

- (1) 국어 • 102
- (2) 영어 • 110
- (3) 한국사 • 119
- (4) 행정학개론 • 125
- (5) 행정법총론 • 132

알짜배기 그룹 스터디 전략 • 140

4. 공부 계획 세우기 • 142

- (1) 공부 계획, 왜 필요한가? • 142
- (2) 합격 플래너 꼼꼼 활용법 • 144

5. 합격을 부르는 노트 정리법 • 151

- (1) 왜, 노트 정리인가? • 151
- (2) 노트 필기 준비물 • 152
- (3) 실전 노트 정리법 • 153

효과 만점 기본서 활용법 • 158



IV

합격수기

1. 박문각 스파르타반

-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 161
- 합격하고 뒤를 돌아보니 나 혼자 합격한 것이 아니라~ • 165
- 수험은 참 괴로운 과정~ 보상과 위로가 필요 • 170

2. 박문각 기숙연계반

- 공부한 내용이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해질 것을 믿으며~ • 176
-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 179

D-1 시험 전일 막판 정리법! • 182

드디어 D-Day, 시험장에서 해야 할 일 • 183

“

도전에 성공하는 비결은 단 하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 디오도어 루빈 -

”



공무원 시험 들어다보기

1. 공무원 시험 열풍, 이유는?
2. 공무원이란?

1. 공무원 시험 열풍, 이유는?

2021년도 국가직 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198,110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 예정 인원은 5,662명이었다. 경쟁률 35 대 1, 실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다. 고용 시장은 불안정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신입 직원 채용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20~30대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보다는 공무원 시험 응시를 선택한 고교 졸업생, 인생 2막을 준비하는 40~50대 늦깎이 지원자까지 몰려 가히 공무원 시험 열풍을 만들고 있다.

공직의 가장 말단이라 할 수 있는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연령을 불문하고 20만여 명의 수험생이 몰리고, 공무원이 되고자 정부청사에 침입해 성적 조작까지 저지를 정도로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응시 연령 제한 폐지,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공무원 시험에 응시 가능한 연령은 하한선만 있을 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40~50대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정리하고 등 직장을 그만둔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수험생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뛰어난 합격 전략으로 인생 2막을 9급 공무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의 합격수기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공무원 시험은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한 시험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더러,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제도도 있다.

(2) 직업 선호 조사 1위 공무원, 그 이유는?

20대 이상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은 배우자 직업으로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0%가 가장 선호하는 자녀의 진로를 공무원으로 꼽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좋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직업으로서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① 안정적인 정년 보장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다.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직, 명예퇴직 등의 걱정 없이 정년을 보장받는다. 일반 대기업의 경우 40~50대 사이에 퇴직의 압박을 받고,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정년이 55세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은 안정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 직업이라 할 것이다.

② 각종 수당 지급, 호봉제

2021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면 9급 1호봉의 월지급액은 1,659,500원이다. 봉급(기본급)으로만 보면 다소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는 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18종)으로 구성되어 기 때문에 여러 수당을 합치면 결코 적다고만 할 수 없는 금액이다.

+ 자세히 보기 공무원 보수: 봉급(기본급) + 수당(18종)

수당(1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여수당(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성과상여금 3종) —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주택수당/육아휴직수당 등 4종) —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등 4종) —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등 2종)
실비변상(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 급식비(월 14만원) — 직급 보조비(월 13.5~75만 원) — 명절 휴가비(월 봉급액의 60%) — 연가보상비(20일 내)

+ 자세히 보기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개정 2021. 1.)

(월 지급액, 단위: 원)

계급· 직무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122,900	3,711,600	3,348,600	2,870,000	2,564,700	2,115,800	1,898,700	1,692,800	1,659,500
2	4,267,400	3,849,300	3,472,500	2,987,200	2,668,400	2,214,200	1,985,300	1,775,100	1,682,300
3	4,415,600	3,988,800	3,600,100	3,106,300	2,776,000	2,315,800	2,077,000	1,861,800	1,720,400
4	4,567,100	4,129,700	3,728,600	3,228,200	2,887,800	2,419,500	2,173,400	1,950,300	1,773,600
5	4,722,300	4,272,500	3,859,200	3,351,800	3,002,500	2,526,400	2,273,200	2,042,300	1,842,100
6	4,879,400	4,415,500	3,991,100	3,476,500	3,119,600	2,636,200	2,375,400	2,136,600	1,928,200
7	5,038,800	4,560,400	4,124,500	3,602,400	3,238,500	2,746,300	2,478,300	2,231,200	2,013,800
8	5,199,600	4,705,100	4,258,300	3,728,900	3,358,900	2,856,700	2,581,900	2,322,100	2,096,400
9	5,362,600	4,850,800	4,393,300	3,855,900	3,479,600	2,967,500	2,680,400	2,408,800	2,175,400
10	5,526,500	4,996,400	4,528,100	3,982,600	3,601,200	3,071,400	2,774,400	2,490,800	2,251,400
11	5,690,200	5,142,700	4,663,100	4,110,500	3,714,800	3,170,000	2,863,100	2,570,300	2,324,000
12	5,859,300	5,293,900	4,803,100	4,230,900	3,824,400	3,267,100	2,950,300	2,647,900	2,396,100
13	6,029,400	5,446,200	4,933,200	4,343,500	3,928,400	3,358,400	3,033,000	2,722,500	2,465,200
14	6,200,000	5,583,900	5,054,000	4,448,500	4,025,400	3,444,600	3,112,100	2,793,700	2,532,400
15	6,349,000	5,711,000	5,165,300	4,547,400	4,117,000	3,527,500	3,187,600	2,862,200	2,596,400
16	6,481,300	5,827,400	5,269,100	4,640,700	4,203,200	3,605,100	3,259,100	2,928,300	2,658,500
17	6,598,700	5,934,600	5,365,600	4,727,400	4,284,300	3,679,100	3,327,700	2,990,000	2,719,100
18	6,703,200	6,032,500	5,455,200	4,808,300	4,360,900	3,749,100	3,393,300	3,049,900	2,775,500
19	6,796,800	6,123,100	5,538,100	4,883,900	4,433,000	3,815,600	3,455,100	3,107,300	2,831,100
20	6,880,700	6,205,600	5,615,800	4,954,500	4,500,600	3,878,100	3,513,900	3,162,100	2,884,100
21	6,958,000	6,281,100	5,687,600	5,020,600	4,564,200	3,938,200	3,570,100	3,214,400	2,934,100
22	7,026,800	6,350,400	5,754,300	5,082,500	4,623,900	3,994,800	3,623,100	3,264,600	2,982,000
23	7,085,000	6,413,700	5,815,700	5,140,600	4,680,400	4,047,900	3,674,400	3,312,400	3,027,700
24		6,465,500	5,873,100	5,195,400	4,733,000	4,098,400	3,723,000	3,358,600	3,071,500
25		6,515,000	5,920,200	5,245,500	4,782,900	4,146,600	3,769,100	3,402,300	3,113,400
26			5,965,200	5,287,900	4,829,900	4,192,000	3,813,400	3,444,800	3,151,300
27			6,006,900	5,327,100	4,868,800	4,235,100	3,850,700	3,480,200	3,183,800
28				5,364,500	4,906,100	4,271,300	3,885,500	3,514,200	3,215,200
29					4,940,500	4,305,200	3,919,200	3,546,500	3,245,400
30					4,973,900	4,338,600	3,951,300	3,577,700	3,274,800
31						4,369,600	3,981,500	3,608,000	3,303,700
32						4,398,9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더구나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2,000~2,50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9급 1호봉 봉급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근속 1년마다 급여가 1호봉씩 인상되기 때문에 잦은 연봉 동결이 이루어지는 일반 기업의 근로자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근속에 대한 대우를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다.

③ 폭넓은 복지 혜택

공무원의 경우 보수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적을지 몰라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간극을 줄여 나가는 추세이다. 일반 사기업에 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기개발의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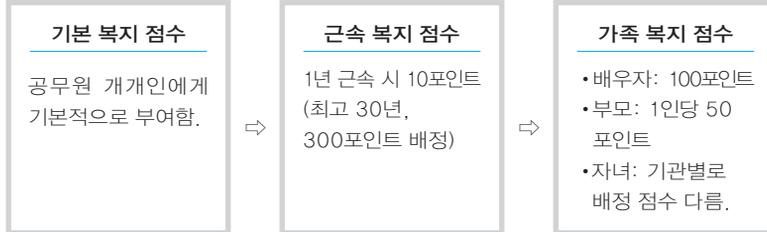
공무원의 경우 일정한 선발 기준을 통과한 공무원에게는 국비로 해외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자비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 자녀 학자금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보조해 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시 국고에서 학자금을 대여해 준다.

▣ 복지 포인트 제공

공무원에게는 복지 포인트가 제공된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으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서, 매년 1월 1일 새롭게 부여된다. 지난해에 남은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그 해마다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복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1포인트 당 1,000원으로 환산된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기본 점수에 근무 연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 점수, 근속 점수 등이 합쳐져서 개인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자세히 보기 복지 포인트 구성 예시**▣ 육아 휴직 제도**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3년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육아 휴직 기간 1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장점임이 분명하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많은 부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서 3년의 육아 휴직 기간은 본인의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일례로 교사와 공무원 부부의 경우, 남편이 육아 휴직을 쓰고 남편의 휴직 기간이 다 끝날 때쯤 부인이 육아 휴직을 쓰게 되면 6년 정도 아이를 부모가 오롯이 키울 수 있다. 또한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반면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서는 육아 휴직이 보장된다는 점도 큰 장점 중의 하나다.

▣ 주택 자금 대출 등

그 밖에도 낮은 이율로 주택 자금이나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임대 주택 제공의 혜택도 있다.

(3) 평범한 수험생이 합격한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매력적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최후의 승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분명 학창 시절 성적이 뛰어난 우등생이나 모범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험난한 수험 생활을 이겨내고 합격의 영광을 안은 수험생은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다.

수많은 합격수기에서 합격생들은 말한다. 자신은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도,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다고.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자신이 남보다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노력했고 1시간이라도 먼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다고 말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공무원 수험 생활이 쉽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 매우 어렵고 혹독한 과정임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고 합격하는 사람들은 결코 머리가 좋아서도,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닌 인내·끈기·절제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응시생들의 성실성을 점검하는 시험이며, 적어도 1년 이상의 수험 구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공무원 시험은 제한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도출해야 하며,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를 맞힐 수 없게끔 출제하는 시험인 것이다.

이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 10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시험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2. 공무원이란?

(1) 공무원의 유형

공무원의 유형은 분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공무원은 임용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고용되어서 어디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대통령(소속 장관)과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에 고용되어서 국가 기관에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라 하겠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장과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고 지방자치 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직 공무원은 주로 행정부나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의미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을 의미한다. 권한과 책임의 강도가 세고,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선발되며, 국회의 수석 전문 위원, 행정 각 부의 차관보, 비서관 등이 있다.

③ 입법공무원, 사법공무원, 행정공무원

공무원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입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회의 사무 직원인 입법공무원, 사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법부의 직원인 사법공무원, 행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행정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행정공무원이다.

(2) 공무원이 하는 일

공무원의 직군은 다양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얘기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주로 수험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일반적으로 5급, 7급, 9급으로 나누어 시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급이나 8급 선발시험도 시행된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계급별·직렬별로 과목이 상이하다. 따라서 수험생은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계급·직렬에 맞는 시험 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과목뿐만 아니라 난이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계급이나 직렬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7·9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7·9급 공무원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별로 각기 다른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일부 기관에서 별도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를 먼저 선택한 뒤, 해당 시험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인데, 일반직 공무원은 크게 행정직·기술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직렬별로 7·9급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행정직군 공무원

일반행정, 교육행정, 세무, 관세, 복지,公安 등 폭넓은 일을 수행한다. 직렬별로 업무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요 직렬별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렬(직류)	업무 내용
행정직(일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국가 제도의 연구, 법령 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 성격의 업무
행정직(교육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제도의 연구, 법령 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행정직(고용노동)	노동현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
행정직(선거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 선거 및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선거 관리 업무 • 정당 관리, 정치자금 관리, 공명 선거 및 투표 참여 홍보 등
행정직(인사조직)	공무원 채용과 인재개발, 성과관리 등
행정직(회계)	회계 업무 및 결산 업무
직업상담직(직업상담)	고용센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상담
세무직(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관세직(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심리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통계직(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기준의 설정, 표준 분류, 통계조사의 설계 • 주요 경제사회 통계조사의 실시·분석·공표, 통계정보 자료의 유지 및 관리
감사직(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확인 및 회계 감사 • 직무 감찰 업무의 계획·집행 • 감사 결과에 따른 위법·부당한 사항의 지적, 개선 권고, 관계자의 처분에 대한 판정 업무
사서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운영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제도의 조사 연구 • 도서관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업무 • 도서관 자료 및 참고 자료의 수집 선택·수집 분류·목록의 편성, 보관 및 열람 업무
사회복지직	복지행정 분야의 관리 및 집행 업무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또는 국제기구와 외교관계 유지 •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 • 외교 의전·여권 발급 등 외무행정 지원 업무
교정직(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직렬(직류)	업무 내용
보호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 자료 제공 • 소년원 및 소년부류심사원의 운영·감독 등 소년보호행정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 예방 활동 • 보호위원회에 대한 업무감독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및 응급 구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검찰사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 등 검찰사무 보조 •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 운영
마약수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 범죄수사·조치 • 마약·한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 단속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 출입국 관리사범의 단속·수사 및 조치 •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
철도경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로서 열차 내 승객의 안전 보호, 철도 장비·화물·승객의 휴대품 도난 방지 • 기타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건의 처리(열차 내에서 행하는 승차권 검사 등 철도 운송에 관한 업무는 운수직이 담당)

▣ 기술직군 공무원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군이다. 모집 인원은 적지만 관련 분야가 명확하여 비전문가가 쉽게 응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공자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시험 과목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도전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직렬(직류)	업무 내용
공업직(일반기계)	자동차·철도차량·산업기계·건설기계·수도·위생설비·계량기 등 각종 기계의 설비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
공업직(전기)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 등의 전기기술 분야 업무를 담당
공업직(화공)	무기 및 유기화학·생화학·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
농업직(일반농업)	식량 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의 생산 및 농산물 검사 업무를 담당
임업직(산림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 임산물의 이용·가공·목재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시설직(일반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교량, 상·하수도, 항만, 하천, 철도, 댐 등의 건설 공사 업무를 담당 농지계량 및 농지 확대를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업무를 담당 측량 제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
시설직(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업무를 담당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
전산직(전산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및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전산직(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제·개정, 교육 계획 수립, 정보보호 실태 점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
방송통신직(전송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기기의 보급 및 품질 개선 등 통신 정책에 수반된 장거리 통신시설의 신설 및 증설 업무 국가안보통신, 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업무 담당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보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업무 검사, 방역 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 침입과 국외로의 전파를 막는 검역 업무를 수행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업무 환경위생 등의 보건 업무를 담당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재난 대응 및 총괄 기획 지역 안전관리 계획 및 지역 재난 대응 계획 수립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 장비운영·관리

(3)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상세히 나와 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성실 의무를 진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데 이를 복종의 의무라 한다. 또한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이것은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이다.

그 밖에 공무원은 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교 중립의 의무(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밀 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등을 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이하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기존의 「공무원 윤리헌장」이 35년 만에 개정되어 국가관·공직관·윤리관 등 세 분야로 핵심 공직 가치를 구조화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 공무원 윤리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시험 파고들기

1. 공무원 시험 개요
2. 응시 자격
3.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모집제
4. 가산점 제도
5. 개별 공무원 시험 안내
6. 최근 채용시험 제도 변경 사항

1. 공무원 시험 개요

(1) 국가직 공무원/지방직·서울시 공무원

공무원은 크게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합격 후 중앙 부처 또는 중앙 부처의 하급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시험 공고는 보통 매년 12월 말이나 1월 초쯤 발표되지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시험 전에 반드시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www.gosi.kr) 등에 방문하여 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각 지방 자치 단체의 하급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공고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local.gosi.go.kr)에서, 서울시 공무원 시험 공고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gosi.seoul.go.kr)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2) 공무원 채용시험의 종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채용시험에는 공개 경쟁 채용시험과 경력경쟁 채용시험이 있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다.

공개경쟁 채용시험	국가공무원으로서 응시 자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가 없는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등에서 정한 응시 연령에 해당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다.
경력경쟁 채용시험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관련 분야의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응시 조건을 갖춘 지원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3)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기관

구분	관련 법령	담당 기관	
국가공무원	행정부 일반직 3~9급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소속장관(각 부처)	
	연구·지도직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소속장관(각 부처)	
	특정직	검사	「검찰청법」 법무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외교부 인사혁신처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법」 경찰청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법」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군인	「군인사법」 국방부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국방부
		경호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처
		입법부 일반직	「국회인사규칙」 국회사무처
	사법부 일반직	「법원공무원규칙」 법원행정처	
	중앙선거위 일반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헌법재판소 일반직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도청, 시·도교육청)		

■ 공무원 채용시험 정보, 이곳에서 확인하자

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는 해당 시행 기관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도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과 제도·연간 채용시험 통계 및

각종 공지사항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외 시험 단계별로 시험 일시 및 장소도 공고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의문 사항이나 개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온라인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문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국가 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local.gosi.go.kr)를 살펴보면 된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gosi.seoul.go.kr)가 있다.

시험명	홈페이지 주소	주관 기관
국가공무원 (5·7·9급)	www.gosi.kr www.gojobs.go.kr www.mpm.go.kr	인사혁신처
국회공무원	gosi.assembly.go.kr	국회사무처
법원공무원	exam.scourt.go.kr	법원행정처
군무원	www.recruit.mnd.go.kr www.goarmy.mil.kr www.navy.mil.kr rokaf.airforce.mil.kr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경찰공무원	gosi.police.go.kr	경찰청(각 지방경찰청)
소방공무원	www.nfsa.go.kr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국가정보원 직원	www.nis.go.kr	국가정보원
초중등 교사	www.kice.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시험 공고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험 계획은 시험일 해당 연도 초에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공고된다. 해당 연도의 선발 예정 직렬 및 인원,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응시 자격, 원서 접수 기간, 시험 일정 등이 상세히 공고되므로 수험생들은 이것을 꼭 살펴보고 수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원서 접수일 및 시험일 등을 잘 체크해서 착오나 혼동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등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 시험 절차 및 시험 개요

시험은 크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

7·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한 번만 보게 되는데, 7급의 경우에는 필수 7과목(다만, 외무영사직은 필수 6과목, 선택 1과목으로 이루어짐, 영어는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을 보며, 9급의 경우에는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을 포함하여 총 5과목(선거행정, 방재안전 등 예외 있음)을 본다. 하지만 7급은 2021년, 9급은 2022년부터 시험 제도가 변경되므로 이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7급과 9급 공채의 경우 면접시험은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부터 영어 면접이 폐지되고 7급에는 집단토론, 9급에는 5분 스피치가 각각 도입되어 면접 비중이 높아졌다.

구분		면접 시간	면접 방법
국가직	7급	150분 내외	집단토의+개인 발표+개별 면접
	9급	70분 내외	5분 발표+개별 면접
서울시	7급	105분 내외	토론 면접+주제 발표+개별 면접
	9급	40분 내외	5분 스피치+개별 면접

※ 과제 검토 및 작성 시간 포함

● 면접시험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평정 방법은 면접위원들(7급: 3명, 9급: 2명)이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게 된다.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우수로,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미흡으로 분류한다. 그 외의 경우는 보통으로 평정한다.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우수	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제2차 시험(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합격
보통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내 달할 때까지 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	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6급 이하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의 제2차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거나,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탈락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심층면접)을 실시한다.

● 공무원 면접시험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정부는 2015년부터 5·7·9급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고 있다.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3차 면접시험에서 NCS를 기반으로 공직사회 가치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5급은 중간관리자 역할을, 7·9급은 실무능력 평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2. 응시 자격

2014년 2월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이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메인 화면 배너 중 ‘지원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선택하여 하위 메뉴의 5급 공채, 7·9급 공채, 민간경력 채용 등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지원자들이 스스로 체크 리스트를 입력하면 지원자들의 응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가진단 주요 항목은 연령, 결격 사유, 국적, 신체검사, 임용유예, 시험 과락 등이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응시 결격 사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복권이 된 사람은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연히 복권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도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그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도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찰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군 복무 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 체납, 의가사 제대 등은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 복무 전이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최종 합격한 후에는 임용 유예 신청을 한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다. 따라서 군 미필자의 경우에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응시 결격 사유의 존부 확인은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실제 임용 예정 부처에서 실시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국적 취득 여부 판단은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공무원임용령」 제4조 등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해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외국 영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는 채용시험(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가 신고된 재외국민에 한하여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재외동포가 그 나라의 국적이거나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외국인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국적법」에 의한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도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지만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에서 임용이 불가하다. 단, 경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분야 등의 합격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령」상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분야(「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 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 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3) 학력 및 경력

공개경쟁 채용시험(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일반외교’ 분야 포함)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종래의 학력 제한은 1973년에 폐지되었고, 2005년부터는 응시 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여 시험위원 등 다른 사람이 수험생의 학력 사항 등을 알 수 없게 하였다(블라인드 면접 방식). 즉,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통과하는지를 기준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다.

(4) 응시 연령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 이전의 속한 연도에 다음 구분에 따른 응시 연령에 해당되어야 한다.

채용시험	응시 연령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만 20세 이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만 18세 이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교정, 보호직)	만 20세 이상

※ 단, 소방공무원(공채)의 경우 응시 하한 연령은 18세이다.

2009년부터 응시 상한 연령은 폐지되었다. 나이가 많아도 본인이 원한다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경찰(경찰청)·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계급 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 상한 연령을 유지하고 있다.

(5)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산직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응시 자격이 인정된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7급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시험 응시에도 인정된다.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소지 여부 판단은 당해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것이다.

2017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험생이 응시 요건이나 가산점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원서 접수 시 가산 자격증 등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www.cq.or.kr)에서,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q.or.kr)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니 시험 일정 및 원서 접수 등에 관해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나머지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시행].

(6) 신체검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체검사는 공채시험 최종 합격 후 임용 전에 실시하는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종전에 교정직, 철도경찰직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던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폐지되었다. 6급 이하 교정·철도경찰직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모집제

(1) 임용 예정 기관·지역별 구분모집제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근무 예정 기관 또는 근무 예정 지역별로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별 구분모집제는 지역 출신 인재를 발탁하여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연고지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이다.

국가직 공무원도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전국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임용 예정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많은 신규 임용자들이 임용을 포기하기도 하고, 임용 후 사직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부의 인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기관별·지역별 구분모집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험 자체는 동일하지만 처음부터 특정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응시한 사람끼리 경쟁하고 합격선도 그 해당 지역 자체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별 구분모집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당해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응시 요건 및 주요 내용 안내

모집 단위	주요 내용
7급 공채 기관 지역 구분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일반행정)직에서 우정사업본부 구분모집이 있으나 거주지 제한 요건을 두는 지역별 구분모집은 없음. *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전국,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장애인 • 우정사업본부에 배치 임용
9급 공채 기관 지역 구분모집 (공통,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당해 연도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 자격이 인정됨. *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3개월 이상)을 확인하며, 원서 접수일이나 필기시험일과는 관련 없음. • 다만, 서울·인천·경기 지역 모집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임용됨. • 기관별로 모집하면서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지방 소재 소속 기관에 임용됨. (☞ 우정사업본부 강원 지역 모집 ⇨ 강원도 소재 우체국)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된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시에는 전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점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지역별 구분모집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국가직(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과 지방직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혼동하여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집 단위에 지원함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수험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응시 원서 접수 전에 공고문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거주지 제한 규정 비교(예시)

<p>국가직 9급 지역 구분모집 응시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p>VS</p>	<p>지방직 9급 거주지 제한(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 당해 연도 1. 1.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	--

특히 지방직 9급 거주지 제한 요건은 시·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국 모집과 지역별 구분모집 비교

구분	거주지 요건	근무 예정 지역	응시 지역
전국 모집	제한 없음	임용 예정 부처의 사정에 따라 각 지역으로 발령	자유롭게 응시 지역 선택 가능 (응시 지역은 주민등록지, 발령 지역 등과 관련 없음)
지역별 구분모집	거주지(주민등록) 제한 있음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구분모집 지역 내의 국가 일선기관에 임용	구분모집 지역에서 응시 (여러 개의 시도가 하나의 구분모집으로 묶인 경우 그중 응시를 원하는 시·도 선택 가능)

(2) 장애인 구분모집제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발 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 직렬 등을 제외한 직렬에서만 시행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의 응시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응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중복 접수는 할 수 없다.

(3)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발 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자신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보호) 기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교정·보호 직렬 및 성별 구분모집 직렬은 제외)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에서 적용되며,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 단위에 한해 적용된다.

그밖에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시험 계획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용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요건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	<p>①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 후보자: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선 -2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p> <p>②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p>

※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요건	제2차 시험(7·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적용	<p>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p> <p>① 시험령 제23조 제5항, 제23조의 3 제5항, 제25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하여 면접 시험을 시행하고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p>② 균형 인사 지침(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1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 처리 ※ 이때, 동점자 전원을 추가 합격시킴에 따라 목표 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②-2 다만,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 이때, 동점자 전원을 추가 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필기시험 합격 예정 인원 중 어느 한 성이 채용 목표 비율(30%, 검찰사무 직렬은 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그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선발하는 제도이므로, 기존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남성이 동 제도를 적용받아 합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성만을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다.

물론 면접시험 응시 인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만 이런 경우 면접시험에서도 일정 인원(선발 예정 인원×30%-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의 여성 합격자 수) 범위 내에서 최종 합격 인원이 늘어나게 되므로 다른 한 성별에 과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응시자가 선택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발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추가 합격의 행운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알아 두면 유용한 제도라 할 것이다.

(5)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가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가 바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이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은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이다.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 단위에서 적용되며, 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 지방학교는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다음의 학교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로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 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은 지방학교에 포함
-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연세대 원주캠퍼스(지방학교에 해당),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지방학교에 비해당)
- 「한국과학기술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학교 중 지방에 소재하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특별법으로 설치된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 제3사관학교와 외국학교(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포함)는 지방대학에서 제외된다.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의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는 해당

- 「고등교육법」상의 지방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서울 지역 대학 이외의 지역 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졸업예정자: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 학점에 도달된 자

② 지방학교 중퇴가 최종 학력인 자

③ 지방대학 재학 또는 휴학자의 경우

-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서울 지역 대학 이외의 지역 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 중인 자는 해당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 편·입학자는 제외

④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서울 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 지방 소재 학교가 서울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⑤ 지방인재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지방학교일 경우 해당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 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검정고시 합격자

⑥ 기타 지방인재에 해당되는 경우

- 최종 학력이 「초·중등교육법」상의 초·중등교육 이하인 경우는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 소재지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 면제를 받는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경우는 서울 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체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사람
-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는 중퇴한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지방 소재지인 사람
- 아래에 열거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또는 열거된 학력의 보유자는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지방학교인 자
※ 대학원, 사이버대학 및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독학 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

지방인재로 인정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차 시험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의 채용 목표 인원은 시험 실시 단계별로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의 20%(7급 30%)를 곱한 인원수이다. 채용 목표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 합격은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의 10%(7급 5%)를 곱한 인원수로 제한한다(추가 합격 상한).

※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5급 공채시험 예시: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이 100명인 경우, 추가 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가 15명(15%)인 경우에도 추가 합격자는 5명(5%)을 넘을 수 없음.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적용 방법(7급 공채 기준)

필기 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방법	요건	지방인재가 시험 실시 단계별 채용 목표 인원에 미달한 경우
	7급 공채	과락자를 제외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채용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
면접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방법	요건	제2차 시험에서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킨 경우
	적용	<p>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p> <p>① 시험령 제23조 제5항, 제23조의 3 제5항, 제25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p>② 균형 인사 지침(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1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 처리하고, 이 경우에도 지방인재가 여전히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 처리 ※ 이때, 지방인재 추가 합격 상한 인원(5급·외교관후보자: 당초 합격 인원×10%, 7급: 당초 합격인원×5%)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점자 전원을 추가 합격시킴에 따라 추가 합격 상한 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함.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②-2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지방인재가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인재가 아닌 자를 차례로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지방인재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 전원을 추가 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채용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가 탈락되는 제도는 아니다.

수험생이 자주 하는 질문 FAQ

Q.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적용으로 지방대 출신만 우대하는데,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지방인재가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필기시험 합격 예정 인원 중 지방인재가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기존 합격선에 든 비(非)지방인재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非)지방인재가 손해를 보는 제도는 아닌 것이다. 물론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면접시험에서도 일정 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 합격 인원이 늘어나므로 비(非)지방인재 응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다.

Q.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학교로 인정되나요?

A. 균형 인사 지침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에 한해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등이다.

Q. 어떤 수험생이 지방인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나요?

A. 지방인재 합격자가 채용 목표인원 및 추가 합격 상한의 목표 인원 미달되지 않도록 면접위원들에게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기는 하지만, 어떤 수험생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사전에 면접위원에게 알려줄 경우 면접시험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실패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 조슈아 J. 마린 -

”

4. 가산점 제도

공무원 시험에서 1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크다. 이 1점으로 합격이 좌우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설명하는 가산점 제도도 반드시 활용하여 합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은 90% 이상이 가산점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합격자 중 약 90% 내외가 가산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산점 없이 합격한 사람은 10% 내외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가산 특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취업 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사에게 주어지는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있다. 전자는 대상자에 해당하여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이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후자는 자신이 노력하는 여하에 달린 것이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미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이 좋겠다.

가산 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분	가산 비율	비고
취업 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사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사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사 등(의사자 유족,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1개의 자격증만 인정)	

※ 2017년 국가직 시험부터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점은 폐지됨.

※ 국가직 7·9급 공채 기준

(1) 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 제도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의 적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이거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인 경우이다.

가산 방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과락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취업 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 서울시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의사상자 가산점 제도

의사상자 가점의 적용 대상은 국가직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6조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이며, 지방직·서울시 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2에 의한 의사자 등이다.

가산 방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과락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상자 등록 여부, 가산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직렬	가산 대상 자격증	가산 비율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변호사, 변리사	5%
행정직(교육행정)	변호사	
행정직(회계)	공인회계사	
행정직(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직업상담직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가산)	

□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 비율	5%	3%	5%	3%

5. 개별 공무원 시험 안내

(1)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국가직·지방직·서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지방직·서울시 시험일 동일).

9급 국가직 시험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인 반면, 지방직 시험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주관하고 선발하는 시험이다. 9급 국가직 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이 있어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과 혼동하기도 하는데, 수험생들은 해당 지방직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 자격 요건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① 시험 방법

서울시 시험 일부 과목을 제외한 각 지방직 필기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가 위탁받아 출제하기 때문에 국가직 필기시험과 문제 유형이 매우 유사하다.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은 기본적으로 4지 1택형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20문항으로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100분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했지만, 타 시·도와 동일 날짜에 필기시험을 시행함에 따라, 2020년부터 일부 과목을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고 있다.

국가직 시험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gosi.kr), 지방직 시험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local.gosi.go.kr)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를 통해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여기에서 시험 공고도 확인해야 한다.

● 지방직 거주지 제한 요건

- ①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 둘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③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과 ㉡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 경기도 외 강원도, 경상남·북도 등 지역별로 거주지 제한 예외 요건이 있으며, 내용이 지역별로 상이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게 되면 당해 지방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출생, 주소 변경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현재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기도 지역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단, 거주지 제한 요건이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응시 전에 해당 지자체별 시험 공고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2021년도부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 7급 및 8·9급 공개경쟁 과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 접수는 불가하니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2021년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서울시 시험 비교(9급 기준)

구분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주관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시험 공고 시기	매년 초(1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공고
거주지 제한	없음(지역별 구분모집 예외)	있음(서울시 제외)
필기시험 일시 (2021년 기준)	4월 17일	6월 5일
필기시험 출제 기관	인사혁신처(지방직·서울시의 일부 직렬 과목 제외)	
필기시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과목 • 과목당 20문항으로 구성(총 100문항) 	
필기시험 문제 형태	4지 1택형	
필기시험 합격선	전국 공통(지역별 구분모집제 제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면접시험 시행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합격 후 근무처	중앙 부처 또는 중앙 부처 하급 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하급 기관

※ 2020년부터 서울시 시험은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

그동안 서울시는 다른 지방직과는 달리 인사혁신처에 출제를 위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 등이 국가직이나 타 지방직 시험과 상이하였으므로 별도의 대비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고 있다(일반행정 과목은 인사혁신처가 모두 출제).

② 응시 자격

서울시 시험은 다른 지방직 시험과 다르게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 요건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이렇듯 시험 별로 출제 경향 및 시험 일정, 응시 조건 등이 상이하니,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력 및 경력 제한은 없으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제한이 있다(단, 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

또한 전산직 응시자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③ 시험 과목

▣ 국가직 9급 필기시험 과목(2021년 기준)

직렬(직류)	시험 과목(선택형 필기시험) 5과목
행정직(일반행정)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직(고용노동)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행정직(교육행정)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행정직(선거행정)	필수(4):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선택(1): 행정법총론, 형법
직업상담직(직업상담)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무직(세무)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직(관세)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직(통계)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정직(교정)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보호직(보호)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검찰직(검찰)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마약수사직(마약수사)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철도경찰직(철도경찰)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공업직(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직(산림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시설직(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시설조경)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방재안전직(방재안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전산직(전산개발)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산직(정보보호)	국어, 영어, 한국사,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방송통신직(전송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 예정 인원은 정부의 인력 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gosi.kr)를 통하여 공고됨.

2022년부터는 9급 공채 선발 방식도 바뀌게 된다. 일반행정 직류는 사회, 과학, 수학이,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직류는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이 시험 과목에서 제외된다.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표준) 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2022년 이후의 시험을 목표로 한다면 바뀌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한 후 올바른 수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4 경쟁률 및 합격선

▣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선 및 최종합격자(일반 모집)

구분	선발 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필기 합격인원	최종 합격인원
전 모집단위 합계	5,662	198,110	156,311	-	7,514	5,629
일반모집 계	5,183	192,334	151,866	-	6,984	5,240
행정(일반행정 전국:일반)	416	41,754	32,772	400.84	555	417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256	16,511	13,104	-	342	247
서울·인천·경기	18	3,270	2,365	396.32	24	16
강원	34	1,315	1,045	384.10	46	34
대전·세종·충남·충북	28	2,449	2,011	393.23	37	28
광주·전남	62	2,666	2,191	395.73	83	56
전북	10	993	822	396.88	13	7
대구·경북	64	2,879	2,327	390.13	86	66
부산	3	725	523	404.10	4	3
울산·경남	33	1,828	1,503	395.45	44	33
제주	4	386	317	415.36	5	4
행정(우정사업본부 지역:일반)	172	5,327	4,256	-	248	166
서울	26	880	658	388.18	37	26
인천·경기	31	904	699	379.50	45	31
강원	9	276	221	374.02	13	9
대전·세종·충남·충북	18	674	558	381.80	26	18
광주·전남	19	636	515	380.92	27	18
전북	19	513	441	374.74	27	15
대구·경북	18	578	458	373.62	26	18
부산·울산	13	409	329	377.62	19	13
경남	18	400	335	374.10	26	17
제주	1	57	42	374.58	2	1
행정(경찰청:일반)	383	11,632	9,771	394.10	514	429
행정(고용노동:일반)	656	17,892	14,849	387.34	944	674
행정(교육행정:일반)	51	14,394	11,512	411.84	68	54
				<u>/388.70(양성)</u>		
				<u>/389.10(양성)</u>		
				<u>/386.40(양성)</u>		
				<u>/410.80(양성)</u>		

행정(선거행정:일반)	60	1,231	901	396.75	82	60
직업상담(직업상담:일반)	180	3,205	2,272	361.72	242	180
세무(세무:일반)	1,111	19,689	16,058	375.34	1,378	1,111
관세(관세:일반)	55	2,836	2,352	400.09	68	57
				/398.73(양성)		
통계(통계:일반)	66	1,282	1,006	393.42	88	66
교정(교정:남)	603	6,801	5,178	340.59	868	603
교정(교정:여)	52	1,276	1,050	365.06	75	52
보호(보호:남)	131	2,470	1,935	364.62	175	132
보호(보호:여)	56	3,399	2,817	381.85	75	56
검찰(검찰:일반)	233	10,410	7,771	389.08	289	234
마약수사(마약수사:일반)	15	791	474	382.14	19	15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일반)	28	4,045	3,126	403.66	37	33
				/400.69(양성)		
철도경찰(철도경찰:일반)	18	806	498	372.56	26	18
공업(일반기계:일반)	77	3,133	2,338	83.00	104	74
				/82.00(양성)		
공업(전기:일반)	50	2,887	1,990	84.00	65	49
				/81.00(양성)		
공업(화공:일반)	17	1,757	1,329	90.00	25	20
농업(일반농업:일반)	49	3,244	2,578	90.00	64	54
				/89.00(양성)		
임업(산림자원:일반)	49	1,726	1,399	84.00	69	45
시설(일반토목:일반)	74	4,186	3,220	74.00	107	68
				/73.00(양성)		
시설(건축:일반)	41	3,429	2,698	81.00	59	42
시설(시설조경:일반)	9	638	495	86.00	11	9
방재안전(방재안전)	5	571	331	82.00	7	5
전산(전산개발:일반)	186	3,594	2,781	74.00	269	186
전산(정보보호:일반)	18	331	217	73.00	25	18
방송통신(전송기술:일반)	66	1,087	788	67.00	86	66

(2)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국가직/지방직·서울시

흔히 주사보, 기사보라 불리는 7급 공무원은 중앙 부처에서는 초급 직원이지만 하급 기관에서는 비중이 커서 지방 기관인 시청이나 구청 각 과의 핵심이 되는 선임 직원들이다. 7급 공무원이 8·9급 직원들을 통솔한다. 7급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 수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나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여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시험이다. 9급과 마찬가지로 국가직·지방직·서울시 시험으로 나뉘며, 2021년부터 1차 공직적격성 평가(PSAT), 영어(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전문 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뀌었다.

2021년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서울시 시험 비교(7급 기준)

구분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주관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시험 공고 시기	매년 초(1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공고
거주지 제한	없음	지방직 있음(서울시 제외)
필기시험 일시 (2021년 기준)	7월 10일	10월 16일
필기시험 출제 기관	인사혁신처(지방직·서울시의 일부 직렬 과목 제외)	
필기시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공직적격성 평가(PSAT),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차 전문 과목 평가 • 3차 면접시험 	
필기시험 문제 형태	4지 1택형	
필기시험 합격선	전국공통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면접시험 시행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합격 후 근무처	중앙 부처 또는 중앙 부처 하급 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하급 기관

※ 2020년부터 서울시 시험은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

① 시험 방법

2021년부터 1차 공직적격성 평가(PAST),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전문 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뀌었다.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불합격 처리된다. 3차 면접시험은 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해 “미흡”으로 평정한 응시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된다.

단,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 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일정은 국가직·지방직·서울시가 각각 다르고, 매년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시험 시행 기관이 발표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가직 시험은 매년 초에 인사혁신처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를 통해 공고한다. 지방직 시험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는 원서 접수 일정, 방법, 응시 자격, 모집 인원 및 직렬, 시험 과목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② 응시 자격

학력 및 경력 제한은 없다. 다만 응시 연령 하한선에는 제한이 있다(20세 이상). 단, 전산직 응시자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 7급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9급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에도 인정

7급 지방직(서울시 제외)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이 있다. 내용은 9급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 지방직 거주지 제한 요건

- ①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 ②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지역별로 거주지 제한 예외 요건이 있으며, 내용이 지역별로 상이함.

③ 시험 과목

□ 국가직 7급 필기시험 과목(2021년 기준)

직렬(직류)	시험 과목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	제2차 시험(선택형 필기)
행정직(일반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인사조직)	"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행정직(재경)	"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행정직(고용노동)	"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행정직(교육행정)	"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행정직(회계)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행정직(선거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세무직(세무)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관세직(관세)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통계직(통계)	"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감사직(감사)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교정직(교정)	"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보호직(보호)	"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검찰직(검찰)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공업직(일반기계)	"	물리학개론, 기계공학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공업직(전기)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일반농업)	"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임업직(산림자원)	"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시설직(일반토목)	"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건축)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방재안전직(방재안전)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전산직(전산개발)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외무영사직(외무영사)	"	필수(3):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 예정 인원은 정부의 인력 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gosi.kr)를 통하여 공고됨.

앞서 언급했듯이 2021년부터 7급 국가직 공채 선발 방식이 바뀌게 된다. 기존 1·2차 시험(필기시험 병합 실시)과 3차 시험(면접시험)으로 진행되던 방식이 1차 공직적격성 평가(PSAT),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전문 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뀌었다.

④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선 및 합격인원 현황

□ 일반 모집 : 757명 <27개 모집단위>

모집 단위	선발 예정인원	출원 인원	응시 인원	2021년도		비고
				합격선 (지방/양성)	합격인원 (지방/양성)	
전 모집단위 합계	815	38,947	24,723	-	5,758 (185/32)	-
일반 모집 계	757	38,533	24,470	-	5,638 (185/32)	-
행정(일반행정:일반)	215	14,810	9,537	70.33 (67.66/-)	1,586 (81/-)	
행정(우정사업본부:일반)	16	542	316	62.66 (60.00/60.00)	119 (5/6)	
행정(인사조직)	3	791	341	68.00	25	
행정(재경:일반)	14	389	246	62.66 (60.00/-)	103 (5/-)	
행정(고용노동:일반)	37	1,188	741	55.66 (53.33/-)	266 (12/-)	
행정(교육행정)	5	689	356	66.66	36	
행정(회계)	5	117	74	54.66	35	
행정(선거행정:일반)	9	871	494	65.33	67	
세무(세무:일반)	136	3,371	2,245	53.33 (50.66/-)	1,046 (42/-)	
관세(관세:일반)	5	392	246	57.33	38	
통계(통계:일반)	13	638	465	76.00 (73.33/73.33)	93 (7/6)	
감사(감사:일반)	11	970	662	69.00 (66.66/-)	89 (9/-)	
교정(교정)	30	833	536	46.66	224	
보호(보호)	5	162	84	49.33	38	
검찰(검찰)	10	1,823	1,039	69.33 (66.66/-)	74 (7/-)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	5	835	563	68.00	40	
공업(일반기계:일반)	42	1,092	672	57.33 (-/54.66)	308 (-/11)	
공업(전기:일반)	16	1,150	563	65.33 (-/62.66)	116 (-/6)	
공업(화공:일반)	11	847	509	70.56 (69.33/68.00)	86 (6/3)	
농업(일반농업)	3	471	255	69.33	25	

임업(산림자원)	5	260	141	57.33	38
시설(일반토목:일반)	27	588	322	48	206
시설(건축:일반)	28	621	332	41.33	201
방재안전(방재안전:일반)	6	120	72	42.66	40
전산(전산개발:일반)	42	1,302	795	52	320
방송통신(전송기술:일반)	17	307	191	40	125
외무영사(외무영사:일반)	41	3,354	2,673	67.66 (65.33/-)	294 (11/-)

직렬별로 합격선에 차이가 있고 출원 인원 및 응시 인원도 상이하다. 물론 경쟁률이나 출원 인원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직렬을 선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의 합격선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설정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알아보고 목표 점수를 설정할 때 참고하여 합격선보다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3)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1년에 평균 두 차례 정도 시행되는 순경 공채, 경력경쟁 채용, 간부후보생 시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채용 인원은 총 5,889으로 대규모 시험에 해당한다. 특히 2022년부터 시험 과목이 변경되고 영어 및 한국사가 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뀌어 격변이 예고되는 만큼 올해 시험에 많은 수험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부터 헌법과 형사법 그리고 경찰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으며 한국사는 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는 토익 기준 55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업무의 특성상 체력 검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응시 연령에도 상한(일반순경:18세 이상 40세 이하, 간부후보생:21세 이상 40세 이하)이 있다. 또한 운전면허(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매년 초에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를 통해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응시 요건, 시험 절차 및 방법 등은 공고일에 공지되는 채용시험 계획을 반드시 참조하기 바란다.

① 경찰간부후보생

□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21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군복무(제대군인, 사회복지요원, 공중보건기사,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세 연장,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세 연장,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세 연장
- 학력에는 제한이 없음.
- 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체 조건

구분	합격 기준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TBPE) 검사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약도 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 자격 인정함. 색약 보정렌즈는 사용 금지되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청력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사시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사지의 완전성·사시·문신 등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시험 계획 공고 시 공고문을 참조하기 바람.

□ 시험 절차

제1·2차 시험	필기시험	객관식 4과목, 주관식 2과목, 영어(검정제)
제3차 시험	신체검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 조건 및 건강 상태 등 검정
제4차 시험	체력 검사	5개 종목(50m 달리기, 왕복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제5차 시험	적성검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 검정
제6차 시험	면접시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적격성 등 검정

□ 시험 방법

- 1교시: 객관식 필수 2과목(한국사, 형법)
- 2교시: 객관식 필수 2과목
- 3교시: 주관식 필수 1과목
- 4교시: 주관식 선택 1과목

□ 필기시험 과목

시험별	분야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1차 시험	객관식 필수	한국사, 영어(검정제), 형법, 행정학, 경찰학 개론	한국사, 영어(검정제),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 개론	한국사, 영어(검정제), 형법,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
2차 시험	주관식 필수	형사소송법	회계학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선택	행정법, 경제학, 민법 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1과목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

※ 영어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 별표5(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 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에 의거 기준 점수 이상이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

□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필기시험 50%, 체력 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가산점 5% 포함)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순경 공채(일반순경, 101단)

□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18세 이상 40세 이하 군복무(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국제협력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 의사, 전문 연구 요원, 산업 기능 요원) 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2세, 2년 이상인 경우는 3세 응시 상한 연령을 연장함.
- 병역: 제한 없음
-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

□ 신체 조건

구분	합격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각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 결과 약도 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 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 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사시(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 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함.

□ 시험 절차

- 시험 공고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사이트에 공고된다.
- 원서 접수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시험 단계는 필기시험 ⇨ 신체·체력·적성 검사 ⇨ 응시 자격 등 심사 ⇨ 면접시험 순으로 치른다.

□ 시험 방법

- 필기시험: 객관식 5과목
- 신체검사: 신체 조건 등 경찰관으로서의 신체 적합성 검사
- 체력 검사: 5종목(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 적성검사: 성격·인재상·경찰 윤리 검사(450 문항, 130분)
- 응시 자격 등 심사: 제출 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 요건 등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의사 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 지식(1단계 집단 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2단계 개별 면접)

□ 필기시험 과목

필수(2과목)	영어, 한국사
선택(3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 3

※ 2022년부터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대체

각 과목별로 객관식 20문항으로 구성된다.

□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50%, 체력 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가산점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순경 경채(경찰행정학과 특채)

■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20세 이상 40세 이하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 경찰행정 특채 응시 자격에 있는 병역필 규정이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채용 시험 계획 공고 시 공고문을 참조하기 바람.

○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체포술(무도·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 필기시험 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

⇒ 2022년부터 '영어(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으로 변경

(4) 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하는 소방공무원은 방호 업무, 예방 업무, 지도 업무, 야간 소방, 구급 업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이다. 2020년 4월 1일부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5일 근무, 격무 부서 3부제 도입 등의 대책이 추진되면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연간 모집 인원이 많고, 추가 채용까지 늘어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특성상 체력 검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응시 연령 상한선이 있다. 운전면허 1종 소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간부후보생과 소방사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① 소방간부후보생

□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21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여

응시 상한 연령 연장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 기간	1세	2세	3세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학력(경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신체 조건

구분	합격 기준
체격	양팔·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함.
색신(色神)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이 아니어야 함.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 금지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병역법」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필기시험 과목

구분	과목	
인문사회 계열	필수(3과목)	헌법, 한국사, 행정법
	선택(2과목)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중 택 2
자연 계열	필수(3과목)	헌법, 한국사, 자연과학개론
	선택(2과목)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택 2

※ 영어는 토플, 토익, 텡스, 지텔프, 플렉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완화

시험 종류	토플		토익 (TOEIC)	텡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2018. 5. 12. 이전실시	2018. 5. 12. 이후실시		
응시에 필요한 기준 점수	490점 이상	58점 이상	625점 이상	520점 이상	280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520점 이상

- 시험은 총 125문항(과목당 25문항)으로 시험 시간은 총 125분이다.
- 합격 기준: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체력 시험

- 시험 종목: 악력 / 배근력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제자리멀리 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오래달리기 등 6종목
- 평가 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표7 규정에 의함.
- 합격 기준: 6종목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도핑 테스트 실시: 체력 시험 종료 후 응시 인원의 7%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 신체검사

- 지정 의료 기관에서 단체로 실시
- 합격 기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의 별표5 규정에 의한 신체 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적성검사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 자료로 활용

□ 면접시험

단계	평가 요소
1단계(집단 면접)	전문 지식·기술과 그 응용 능력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단계(개별 면접)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 정신

- 합격 기준: 1단계(집단 면접)와 2단계(개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단, 5개의 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 요소에 대하여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와 1단계(집단 면접)와 2단계(개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 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 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위에 따름.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에 의거 그 선발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함.

②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과 경력경쟁 채용으로 나누어진다. 경력경쟁 채용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나 경력, 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응시 자격

구분	내용
응시 연령	공개경쟁 채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력경쟁 채용 20세 이상~40세 이하 소방 관련 학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응시 자격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가산 특전

- 취업 보호 대상자 및 취업 지원 대상자: 매 과목에서 과락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 취득 점수 + 각 시험별·단계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한다.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두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고 분야별로는 하나만(총 2개) 가산한다. 단, 자격증과 사무관리 가점을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없는 응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공개경쟁 채용은 자격증 가산점 없음).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비율(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기준)

구분	5%	3%	1%
자격증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 분야의 기술사·기능장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 분야의 기사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기능사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응급구조사(2급)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시험 방법 및 합격 기준

단계	내용	합격 기준
필기시험	공개경쟁 채용: 5과목(필수 3, 선택 2) 경력경쟁 채용: 3과목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체력 시험	6종목(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신체검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 조건 및 건강 상태 검정(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체 조건 및 건강 상태가 적합한 자
면접시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면접 평가 요소별 심사 위원 점수 합산,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최종 합격자 결정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 합산 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면접시험은 1단계(집단 면접)와 2단계(개별 면접)로 진행되며 1단계 집단 면접에서는 전문 지식·기술과 그 응용 능력(10점),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10점),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을 평가한다. 2단계 개별 면접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20점),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을 평가한다.

□ 필기시험 과목

구분	시험 과목	
공개경쟁 채용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 2과목(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수학, 과학) ※ 2022년부터는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고 선택과목 및 조정 점수 삭제	
경력경쟁 채용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자격증 소지)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그동안 비공개였던 소방 시험 문제가 2019년 하반기 추가 채용부터 공개됐다. 이어 2019년도 소방간부시험도 문제가 공개되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119GOSI(119gosi.kr)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입법공무원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선발 후에는 국회 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 정책처 등에서 일하게 된다. 직급별로 시험을 구분해 보면 입법고시(5급), 8급 및 9급 공채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는 8급 및 9급 공채 시험 위주로 살펴보겠다.

① 8급 공채 시험

8급 공채 시험은 통상 4~6월에 시행되고 일반행정직을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 인원은 15명 내외이다(상황에 따라 변동). 8급 행정직 합격자의 경우 기본 교육(신임 실무자 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 정책처, 국회 입법 조사처의 각 부에 배치되게 된다. 국회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 자격은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험 과목
필기시험 (각 과목 5지선다 25문항/시험 시간 170분)	1교시(85분): 국어·헌법·경제학 2교시(85분): 영어·행정법·행정학

② 9급 공채 시험

9급 공채 시험은 인원 충원 시기에 따라 직류별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속기직·경위직·방호직·사서직·전산직 등을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 채용 시스템 홈페이지(gosi.assembly.go.kr)를 참조하기 바란다.

응시 자격은 학력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직렬에서는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한다.

사서직	준사서 자격증 이상 소지자
속기직	한글속기 3급 이상 소지자
전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트제작전문가
경위직, 방호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함.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이어야 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속기	경위	사서
필기시험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시험시간 100분)	1. 국어	1. 국어	1. 국어
	2. 영어	2. 영어	2. 영어
	3. 한국사	3. 한국사	3. 한국사
	4. 헌법	4. 헌법	4. 헌법
	5. 행정학개론	5. 경호학개론	5. 정보학개론
	전산	토목	건축
	1. 국어	1. 국어	1. 국어
	2. 영어	2. 영어	2. 영어
	3. 한국사	3. 한국사	3. 한국사
	4. 컴퓨터일반	4. 응용역학개론	4. 건축계획
	5. 정보보호론	5. 토목설계	5.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기술
	1. 국어	1. 국어	1. 국어
	2. 영어	2. 영어	2. 영어
	3. 한국사	3. 한국사	3. 한국사
	4. 기계일반	4. 전기이론	4. 통신이론
	5. 기계설계	5. 전기기기	5. 전자공학개론
	촬영	방송기술	
	1. 국어	1. 국어	
	2. 영어	2. 영어	
	3. 한국사	3. 한국사	
	4. 방송학	4. 전자공학개론	
	5. 미디어론	5. 방송통신공학	

(6) 사법공무원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공채 시험은 9급 공채 시험과 법원행정 고등 고시가 있다. 여기서는 9급 공채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력 및 경력의 제한이 없으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법원공무원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응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시험 방법

제1·2차 시험 (병합 실시)	법원사무 직렬 선택형 필기시험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 직렬 선택형 필기시험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제3차 시험	인성검사/면접시험	

※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시험 정보 홈페이지(exam.scourt.go.kr)를 참조하기 바란다.

(7) 우정직 공무원

우정직(계리)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우정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담당 업무는 일선 우체국에서의 우체국 금융 업무·현업 창구(회계) 업무·현금 수납 등 각종 계산 관리 업무 및 우편 통계 관련 업무 등이다. 우정직(계리) 시험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나, 부정기적이므로 우정사업본부(koreapost.go.kr) 및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구분	내용
응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 연령: 18세 이상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응시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 불가
시험 방법	1차 필기시험(3과목 각 20문항 총 60문항) ⇨ 2차 면접시험
시험 과목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컴퓨터일반
시험 시행 기관	지방우정청

6. 최근 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사항

(1) 9급 국가직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2022년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 과목 및 조정점수제 폐지 예정)

①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험 과목 개편

2013년부터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일부 직렬 제외) 필기시험의 선택 과목으로 과학, 사회, 수학, 행정학개론이 추가되었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의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2012년까지는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교 졸업자가 공직에 입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 행정직군은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 2과목(일반행정직 기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중에서 택 2)을 선택하여 총 5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그러나 공업 직렬, 방재안전 직렬 등 일부 직렬은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종전과 같이 필수 5과목을 그대로 응시하게 된다. 또한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②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선택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아래의 공식에 따라 조정점수로 변환·산출하게 되었는데 이를 조정점수제라 한다.

$$\text{조정점수} = \frac{\{\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text{표준편차 산출 공식} =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의 총 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③ 조정점수 산출 및 합격자 결정 방식

- ①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변환한다. 해당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계산식에 의해 조정점수(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은 점수로 산출한 조정점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 ② 과목별 과락 여부를 판단한다. 선택과목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100점 만점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사회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원점수가 35점, 조정점수가 41점인 경우 이 수험생은 과락이 아니다. 반대로 원점수가 40점, 조정점수가 37점인 경우에도 과락이 아니다.
- ③ 가산점 부여 및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산출한다. 과락에 해당하지 않은 응시자에 한해 선택과목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후 계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한다. 즉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2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 ④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성적을 공개한다. 필수 3과목의 원점수와 선택 2과목의 조정점수를 합한 총 득점을 기준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필수과목의 원점수와 선택과목의 원점수 및 조정점수를 공개하지만,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공개하지 않는다.

④ 조정점수 고득점 비법!

위의 조정점수 산출 공식을 참고하면, 조정점수 고득점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내가 받은 점수가 높아야 한다. **Tip** 자신이 고득점을 낼 수 있는 자신 있는 과목으로 선택하자!
- ② 내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이 낮아야 한다. **Tip** 경쟁자에 비해 자신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과목을 찾자!
- ③ 내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가 작아야 한다. **Tip** 표준편차는 응시 인원이 늘어날수록 작아지게 되므로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Case ① 내가 받은 점수가 높아야 한다.

응시자	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공식	조정점수
A	80	60	10	$\{(80-60)/10\} \times 10 + 50$	70
B	90	60	10	$\{(90-60)/10\} \times 10 + 50$	80

Case ② 내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이 낮아야 한다.

응시자	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공식	조정점수
A	80	60	10	$\{(80-60)/10\} \times 10 + 50$	70
B	80	50	10	$\{(80-50)/10\} \times 10 + 50$	80

Case ③ 내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가 작아야 한다.

응시자	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공식	조정점수
A	80	50	20	$\{(80-50)/20\} \times 10 + 50$	65
B	80	50	5	$\{(80-50)/5\} \times 10 + 50$	111

+ 자세히 보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FAQ

- Q. 조정점수 산출은 선발 예정 직렬(모집 단위)별로 분리하는지, 아니면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 A. 조정점수는 선발 예정 직렬(모집단위)에 관계없이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Q. 과락 기준(만점의 40% 이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 A.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40점 이상) 과락을 면한 것으로 봅니다.
- Q. 가산점 부여 시기 및 절차는?
- A. 과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에 한해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 성적을 산출합니다.
- Q.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으로 공통과목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없는지?
- A. 선택과목만 조정점수화할 경우 공통과목의 비중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공통 3과목과 선택 2과목을 응시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단, 2022년부터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전 과목 필수과목이 지정됨에 따라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2) 공채 시험(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추가 합격자 결정 제도

면접 응시 인원이 선발 인원에 미달한 경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임용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제2차 시험(7·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 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과락자를 제외하고 제2차 시험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당초 합격 인원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과락자를 제외하고 필기시험(7·9급 공채만 해당)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 후 별도의 제3차(면접) 시험을 실시한다.

② 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최종 합격자 선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기존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7·9급 공채의 경우 필기 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선발한다.

정리해 보면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1	요건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제3차 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 시험	5급 공채 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실시 방법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 시험 합격 인원 범위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유형 2	요건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 시험	6급 이하 공채 시험
	실시 방법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 실시
유형 3	요건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 시험	5급 공채 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6급 이하 공채 시험
	실시 방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 결정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3)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및 추가 면접 실시 근거

①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종전에는 오로지 면접시험 결과(면접 평가 하위자에 대해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면접시험 평가(우수, 보통, 미흡 중 하나의 등급 부여) 결과와 더불어 필기시험 성적(5급 공채의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 순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6급 이하 공채는 제25조)을 참조하기 바란다.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방식

면접시험 결과	필기 순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우수	부분 반영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단, 우수 등급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필기 성적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보통	반영	합격 또는 예비 합격 (우수 등급자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필기 성적순에 따라 합격자 결정)
미흡	미반영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② 추가 면접시험 시행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채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면접시험(심층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면접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 중에 추가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탈락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국가직 공개 채용 면접시험 대폭 강화

▣ 시행 목적

국가직 공무원 공개 채용 면접시험에 있어서 공직 가치관과 분야별 직무능력을 심층 검증하기 위해 면접 방식을 개편하기로 2015년 4월 10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였다.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을 지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공직 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 면접시험 응시 대상 증가(2015년 국가직 공개채용 면접시험부터 적용)

구분	내용
7·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의 140% 수준에서 결정

※ 단, 모집 단위별 면접시험 응시 인원은 직렬별 특성이나 해당 모집의 필기 성적 분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면접시험 운영 방식 전면 개선

① 1인당 면접 시간 확대

구분	내용
7급 공개채용	집단토의 면접 도입
9급 공개채용	5분 스피치 평가 신설

② 관련 분야 전문가를 면접 위원으로 활용

구분	내용
시행 목적	효과적인 면접시험 진행과 공정한 평가 목적
면접 위원 후보자 풀	전·현직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인사 컨설팅 전문가 등
면접 위원 위촉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면접 위원 교육 강좌를 이수한 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

(4)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제

채용시험 채점 관리의 정확도·신뢰도 향상을 위해 채점 단계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를 2014년 9급 공채 시험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로 인해 답안지 책형 및 답안 표기와 관련된 수험생 불안과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의 신청 추진 절차



※ 성적 이의 제기 과목에 대한 온라인 답안지 열람 신청 가능

① 개인 성적 및 가산점 등 사전 공개

- 시기: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필기시험일 이후 5~6주차)
- 과목: 과목별 원점수(가산점 미포함), 가산점(기관 조회 결과) 등

② 수험생 이의 신청 접수

- 대상: 가채점 결과와 공지된 성적이 달라 채점 결과 확인이 필요한 수험생
- 신청: 성적 공개 기간 내 이의 신청 가능(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채점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 성적이 확정됨.)

③ 재검증 결과 공개

- 이의 신청을 한 수험생의 채점 결과를 OCR 채점 시스템에서 확인·검증
- 이의 신청 처리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④ 본인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

- 본인 성적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서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직접 열람 신청 가능

(5) 7·9급 공채 가산 특전 신청 및 적용 방식 개선

국가직 7·9급 공채 시험 원서 접수 시 가산점을 신청하거나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에 가산 비율을 표기하는 절차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국가직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접속하여 가산 특전 신청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취업 지원대상자 가점은 취업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가점 비율(5% 또는 10%)을 체크해야 한다. 자격증 가산점의 경우에는 자격증명 및 가산 비율을 체크해야 한다.

(6) 응시자 준수 사항 변경

2014년부터 OCR(이미지스캐너) 기기로 답안지를 판독하므로 연필, 샤프, 플러스펜, 적색펜 등 펜의 종류와 색깔에 상관없이 예비 마킹을 할 경우 중복 마킹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예비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평소 예비 마킹을 하던 습관이 있는 수험생들은 예비 마킹 없이도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한 번 작성한 답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히 지워야 하며, 답안지 수거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정액과 수정 스티커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종전에는 답안지에 수정 테이프 사용을 불허하였으나 2014년부터 국가직 시험(단, 사회복지직 제외)에서는 답안 표기를 수정할 때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 후 손으로 꼭 눌러야 할 것이다.

2014년부터 본인 확인용 신분증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추가된 것도 변경된 응시자 준수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만 인정된다.

(7) 인사조직 직류 신설, 직렬 명칭 및 시험 과목 변경

2016년부터 5·7급 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행정 직렬 안에 인사행정을 전담하는 인사조직 직류가 신설되었다.

종전에 철도공안직으로 불리던 직렬은 철도경찰직으로, 검찰사무직으로 불리던 직렬은 검찰직으로 직렬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산직(전산개발) 시험 과목도 변경되었는데, 5급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이 추가되었고, 7·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프로그래밍언어론(폐지)이 정보보호론으로 대체되었다.

9급 선거행정직 시험 과목은 2016년부터 필수 4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과 선택 1과목(행정법, 형법 중 택 1)으로 변경되었다.

(8) 합격자 명단 발표 방식 변경

2014년부터는 일반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응시 번호만을 공고한다. 종전에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우 해당 수험생의 요청에 따라 응시 번호만을 공개해 왔으나, 일반모집에서는 응시 번호와 함께 성명도 공개했었다. 하지만 일반모집 응시자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채용 정보,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점과 일반모집 합격자 성명 공개로 인해 간접적으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 성명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4년부터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응시 번호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9)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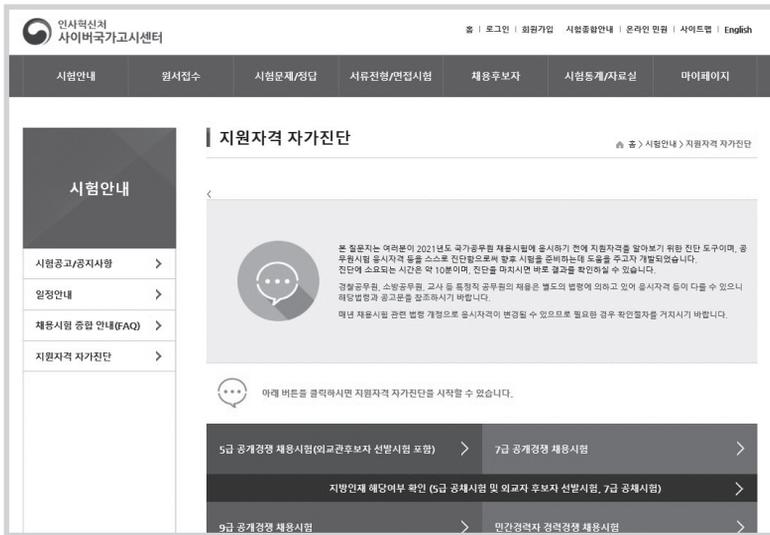
2014년 2월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이 시험 계획 공고문의 지원 자격을 충족했는지 스스로 진단·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었는데,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5급 공채, 7·9급 공채, 민간 경력 채용 등 3개 분야에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구성되며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홈페이지 (gosi.kr)에 접속하여 하단 배너 중 응시 예정자 > 지원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 자가진단 주요 항목

- 공통: 연령, 응시 결격 사유, 국적, 신체검사, 임용 유예, 시험 과락
- 5급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지역 구분모집 등
- 7·9급 공채: 장애인·저소득층·지역 구분모집, 임용 유예 등
- 민간 경력 채용: 관리자·일반 경력, 학위, 자격증

▣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화면



(10) 지방직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통합 출제

서울시에서는 7·9급 시험 문제를 자체적으로 출제해 왔는데, 2020년부터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고 있다. 7·9급 일반행정 직류 전체 과목 등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며,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한 날짜에 7·9급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11) 2021년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2021년부터 7급 국가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선발 방식이 바뀌게 된다. 기존 1·2차 시험(필기시험 병합 실시)과 3차 시험(면접시험)으로 진행되던 방식이 1차 공직적격성 평가(PSAT),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전문 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뀌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텡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로, 기준 점수는 토플은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이고, 토익은 700점 이상이다. 텡스는 2018년 5월 12일 이전에 실시된 시험은 625점 이상, 그 이후에 실시된 시험은 340점 이상이다. 지텔프는 Level 2에서 65점 이상이며, 플렉스는 625점 이상이다.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 등록 가능하니 기간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급 이상으로,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 등록 가능하다.

(12) 2021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2021년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시험 실시·원서 접수 기관이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변경되고, 거주지 제한 없이 희망 근무 지역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단, 응시 지역·분야 중복 접수는 불가하다.

2022년부터는 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가 필수과목이 되고,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제가 폐지된다.

(13) 2022년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고교 과목이 폐지되며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이에 따라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선택과목 조정점수제가 폐지된다. 2022년 이후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국어, 영어, 한국사와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시험을 치러야 한다.

(14) 2022년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편

2022년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바뀌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헌법, 형사법, 경찰학이 필수과목이 된다. 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는 순경 기준 토익 550점 이상, 한국사는 3급 이상이다.

(15) 2023년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응시 자격 변경

기존에는 선발 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응시 자격 요건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졸업자의 기준이 졸업일과 최종 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 바뀌게 된다.

기존	변경(2023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
선발 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졸업 예정자: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2023년의 경우)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 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졸업 예정자: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2023년의 경우)



공무원 시험 똑똑하게 준비하기

1. 학원 200% 활용하기
2. 인터넷 강의 제대로 듣기
3. 과목별 공부 방법
4. 공부 계획 세우기
5. 합격을 부르는 노트 정리법

1. 학원 200% 활용하기

(1) 학원 강의 수강, 꼭 필요할까?

공무원 시험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혼자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 수험 생활의 메카 노량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공부 방법에는 정해진 길이 없고, 왕도도 없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원 강의를 필요한 타입의 수험생 유형과 학원 강의의 득과 실, 학원 선택 방법, 학원 제대로 이용하기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 중 자신을 좀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체크해 보자.

나는 학창 시절 성적을 향상시켜 본 경험이 있다.

나는 한 번 책상 앞에 앉아 2시간 정도 집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나는 한 번 책을 읽으면 끝까지 잘 읽는 편이다.

나는 스스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아는 편이다.

나는 학습 계획을 잘 세우고 공부하는 편이다.

나는 책을 읽으면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잘 파악되는 편이다.

나는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편이다.

나는 공무원 시험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수험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다.

나는 서울, 경기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 완강하고 정해진 학습량을 충실히 이행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 선택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40점 이상이면 독학을 하여도 괜찮은 수험생 타입이다. 자신의 점수가 30점 이상 40점 미만이라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여 공부해도 적합한 수험생 타입이다. 만약 자신의 점수가 30점 미만이라면 학원 실강을 듣는 것이 적합한 타입이다.

학원 강의를 필요한 타입의 수험생 유형

공무원 시험에 처음 입문한 수험생이거나 혼자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이라면 학원 강의를 추천한다. 공부 계획을 잘 세우지만 막상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의지박약형 수험생도 학원 강의를 적합하다. 학원에서 정해 준 커리큘럼을 따라 회독 수를 반복할수록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과 아닌 내용을 추려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이는 공부 범위를 한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수험 생활에 있어서 시행 착오를 줄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학으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원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경쟁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좀 더 강한 동기 부여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더 의지를 다지게 되는 효과도 있다.

(2) 학원 강의의 득과 실

종합반? 단과반? 그것이 문제로다

시중에 출간된 수험 생활 관련 교재들을 보면 종합반 강의를 꼭 필요 한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책들이 많다. 학원에 상담하러 오는 수험생 들만 보아도 “종합반 말고 단과반을 들으라고 하던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종합반이 수험 생활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부분이 자신 과 잘 맞는 선생님의 강의와 공부 방식인데, 이 모든 것을 아울러 2개 월 안에 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종합반이다. 2개월 동안 5과 목에 대한 1회독 완성과 동시에 출결 관리, 주간·월간 테스트를 통한 성적 관리, 1:1 개별 심층 상담 등을 통해 수험 생활과 학습 패턴 을 조절·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앞으로 합격할 때까지의 수험 생활을 단축시켜 주고 무늬만 공시생인 채로 허비하는 시간을 줄 여 주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더불어 2개월간의 수업을 통해 앞으로의 시험 계획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간혹 종합반을 건너뛰고 단과반부터 수강한 수험생이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5과목을 다 공부하지 못했어요.”라는 것이다. 한 과목에 집중하는 공부는 종합반 이후 단계인 심화 단과반 과정에서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니 초시생이라면 종합반 수업을 통해 합격의 틀을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만약 듣고 싶은 과목, 듣고 싶은 선생님을 잘 알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또는 수험 생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험생이라면) 선택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좀 더 보충이 필요한 과목만을 단과반으로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학원 실강의 장점과 단점

학원 실강과 인터넷 강의(동영상 강의)는 강의의 질(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실강을 녹화해서 인터넷 강의 형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학원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실강을 듣는 경우 자신이 수업에 몰입하는 강도, 피드백, 자신의 현 위치 파악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의 몰입도 측면에서는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 경우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긴장감·집중력의 향상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피드백에서도 학원 실강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표시해 두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에게 바로 질문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도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 바로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자신의 현 위치 파악 측면에서도 쪽지시험·일간 테스트·주간 테스트 등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취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테스트를 통해서 학습 성취감을 올릴 수도 있고, 자칫하면 나태해질 수 있는 수험생활에서 경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유지시켜 준다.

학원 실강의 단점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강의료일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공무원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원 강의의 단가가 높은 점이 가장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한 강의 집중이 잘되는 앞자리를 선점하려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야 하는 경우도 많고, 만약 좋은 자리를 맡지 못한 경우에는 잘 보이지도, 잘 들리지도 않는 자리에서 수강해야 하는 것도 단점이다. 더구나 강의실 면적도 넓고, 수험생들이 꼭 들어찬 경우 옆자리 사람의 소음과 불필요한 냄새 등으로 인해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다.

(3) 학원 선택 방법

학원 선택 어떻게 해야 하나?

학원 실강을 듣기로 결정한 수험생에게 학원 선택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저기서 우리 학원이 1등 학원, 최다 합격생 배출 학원이라고 선전하는 가운데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할지는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먼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 누가 추천해서, 누가 좋다고 해서 등 타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어떤 학원이 가장 좋은지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 학원 상담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선생님 타입, 자습 공간 등 학습 환경, 수험 생활 관리 시스템 등을 차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수험생의 빠른 합격을 위해서 학원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종합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요약강의반, 마지막 마무리반 등을 순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선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서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학원을 선택하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며, 학원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

(4) 학원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학원을 선택하되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학원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행하는 성실한 수험생이라면 합격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모두 이런 합격에 대한 염원을 안고 학원으로 오로도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그러나 수험생이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학원을 선택하고 이용하되 전적으로 학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공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험 생활만큼 고독한 과정은 없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원에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길은 장수생이 되는 지름길이다.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목표는 최단 기간에 합격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험 기간은 짧으면 짧게 잡을수록 좋다. 수험생들 중에는 ‘시험은 내년이니까... 난 내년 시험에 올인할 거야...’ 하면서 당해 연도에 닦친 시험이 아닌 다음 해 시험을 목표로 삼는 수험생이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당장 목전에 닦친 시험 회차에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가능한 목표 수험 기간은 짧게 설정해야 한다. 1년 정도의 학습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합격을 판가름 낸다는 목표의식으로 도전해야 한다.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압축적으로 공무원 수험에 쏟아내고 그 이후에는 합격을 쟁취해 내야 한다.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라. 목표는 최단기간에 합격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자습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한다

학원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정규 강의를 듣는 시간 외에 자기 혼자 공부하는 자습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한다. 하루 종일 강의만으로 채워지는 수험 생활은 '공부'했다고 볼 수 없는 시간이다. 결국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일 5시간 이상은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학원 강의도 들을 필요 없다

학원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꼭 그날 배운 부분을 복습하고 점검해야 한다. 복습 없이 학원 강의만 듣고 지나간다면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무언가를 배운 후 망각이 시작되어 한 시간이 지나면 대략 56%를, 하루가 지나면 60%를, 일주일이 지나면 74% 정도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반복 학습을 통해 잊혀지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전이시켜야 한다. 이 과정이 바로 복습이다. 따라서 학원 강의를 충실히 들은 수험생이 오늘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은 그날 배운 부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중요 부분을 가려내어 외울 것을 암기하는 것이다. 잊지 말자. 복습을 하지 않으려면 학원 강의도 들을 필요 없다는 사실을.

2. 인터넷 강의 제대로 듣기

(1) 인강의 필요성

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인강의 최대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량진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학생이나, 본인의 신체 리듬과 학습 스타일에 맞추어 자기 주도적인 시간표를 구성하여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인강을 수강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량진 학원 강의는 보통 1시간에 10분 정도씩 쉬면서 3~4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진행하는데, 공부 습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강의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학원의 시간표에 맞춰 2과목 이상을 하루에 모두 수강을 하고 나면 그날 실강에서 들은 내용을 바로 복습하기보다는 피곤을 달래는 데 시간을 흘려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뇌는 24시간이 지나면 빠른 속도로 전체 내용의 60%를 망각한다고 한다. 따라서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부 습관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가 아닐 경우 무리하게 학원 시간표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하기보다는, 인강을 통해 본인의 페이스에 맞춘 학습 계획표대로 강의 수강과 복습을 병행하여 꾸준하게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② 반복해서 듣기 / 끊어 듣기 / 배속으로 듣기가 가능하다

- 인강은 수강 기간 동안 언제든지 반복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강의 수강 중 판서를 메모하느라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을 경우 다시 돌려서 그 부분을 반복할 수 있다.

- 실강의 경우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가 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뒷부분의 진도를 연속하여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인강은 끊어 듣기가 가능하므로 각자의 이해도에 맞게 차근차근 완벽히 이해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 배속 조절 기능을 이용하여 집중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나 아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집중도와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수준별, 유형별로 다양한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인강은 수준별 혹은 유형별로 커리큘럼이 보다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만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인강의 경우 학원에서 진행된 실강을 그대로 촬영하여 판매를 함과 동시에, 촬영된 영상 중 특정 파트만을 분리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강을 통해 [문법 + 어휘 + 독해] 파트 전 영역을 다루는 영어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 문법 파트만 복습을 원할 경우, 인강으로 해당 기본이론 강의의 문법 파트 촬영 부분만 분리하여 판매하는 파트별 강의 수강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④ 비용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인강은 실강에 비해 대략 70~80% 수준에서 수강료가 형성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강의 수강이 가능하며, 교통비와 식비 등의 추가 발생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학원을 오고 가고, 앞자리에서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미리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훨씬 적어 보다 많은 에너지를 공부에 투입할 수 있다.

(2) 인강 선택법

①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들을 것인가?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따라서 시행착오 없이 자신에게 맞는 강사와 강의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수험 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처음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소위 '1타' 강사의 강의를 무조건 믿고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수험생의 선택을 받는 강의는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강의 퀄리티를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그 강의를 꼭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출발점'과 '취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영어 과목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독해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추천하는 강의라 하더라도, 정작 수능 수준의 기초 어휘가 선행되어 있지 않은 학생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초 어휘가 뒷받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무원 어휘와 독해 스킬을 학습한들 독해가 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적합한 강의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강사의 강의 스타일에 대한 본인의 '취향'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한국사 과목을 들자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히스토리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스타일의 강의를 어떠한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하는 한편, 또 어떠한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설명하여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강사의 목소리, 억양, 강의 진행 속도 등에 대한 평가는 가지각색이다. 따라서 인강을 선택할 때에는 강사별 샘플 강의 또는 무료 특강을 수강하여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강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과목별로 전체 교수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해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선택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 수험생

커뮤니티나 해당 강사의 홈페이지 내 수강 후기 등을 참고하여 비교 대상을 간추려 볼 수 있다.

다만,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수강 후기 등은 업체에서 수강생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작업일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 교수진을 간추리는 정도로만 참고하되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최종 선택은 강의를 수강해 본 이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어떤 형태의 강의를 구매할 것인가?

최근에는 단과 또는 종합반 강의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인강이 판매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상품을 잘 활용하면 수강료나 수강 기간 등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살펴보도록 하자.

▣ 박문각 프리패스 상품

박문각 프리패스 상품은 결제일로부터 1년(또는 6개월 선택 가능)간 과목별(9급 기준으로 5과목) 선택 교수의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 가능한 연간 회원반 개념의 상품이다. 여러 개의 단과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최대 90% 이상 수강료가 저렴하고 수강 기간이 1년으로 넉넉하게 제공이 된다는 점, 또한 패스 구입 시 과목별로 선택 교수의 모든 강의를 제공되므로 강의 수강에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수험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와 같이 앞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강의의 수가 많거나, 수강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수강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박문각 프리패스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박문각 프리패스 상품의 경우 과목별 선택 가능한 교수진에 본인이 수강을 원하는 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제공되는 강의의 수가 많은 만큼 본인에게 꼭 필요한 강의만을 선택 수강하는 변별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강 기간이 1년이나 된다는 것을 믿고, 강의 수강을 미루다 보면 오히려 수험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계획성 있고 규칙적인 강의 수강이 꼭 필요하다.

▣ 교수별 패스 상품

본인이 특정 강사 1명의 1년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를 원할 경우에는 교수별 패스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교수별 패스 상품의 경우 업체 및 강사에 따라 수강 기간 및 제공 강의의 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수강 기간은 1년 또는 다음 해 국가직 또는 서울시 시험일 까지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의의 경우 특정 교수의 전체 강의가 제공되거나 꼭 수강하여야 하는 필수 커리큘럼을 선별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가격은 보통 20~30만 원대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특정 교수의 심화이론 강의 1개 + 기출문제풀이 강의 1개 + 동형 모의고사 강의 1개 정도만 수강하여도 단과로 개별 구입했을 때보다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강사의 단계별 커리큘럼을 모두 수강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교수별 패스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강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더 오랜 기간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패키지 강의

2개 이상의 강의를 10~3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묶어 판매하는 강의 유형이다. 이론 + 문제풀이 패키지와 같이 동일한 강사의 강의를 2개 이상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군무원 패키지와 같이 특정 시험 과목만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가끔 5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수강 기간을 개별 단과 수강 기간보다 짧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3) 인강 사용법

① 학습 로드맵

시기	강의 수강	학습 내용
1~2개월 차	이론입문 종합반	전 과목 개념 정리. 이 과정에서는 강의의 내용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개념을 파악하고 수업에서 강조하는 부분 위주로 핵심 사항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3~4개월 차	기본 + 심화이론 강의(1)	이 시기에는 다섯 혹은 일곱 과목 강의를 한꺼번에 수강하기보다는 여학 과목(국어·영어) 위주로 2~3과목, 혹은 3~4과목의 강의 정도만 수강하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부 내용에 대한 암기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 시기에도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나머지 과목도 1~2개월 차에 수강한 종합반 강의를 토대로 최소한 주 1회 반복적으로 복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5~6개월 차	기본 + 심화이론 강의(2)	3~4개월 차에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3~4개월에 수강한 과목에 대한 복습을 함께 진행한다.
7~8개월 차	기출 +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문제 및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문제 유형 적응과 함께 취약한 파트를 확인하여 이론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한다. 이 시기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0개월 차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실전에 대비하여, 동일한 문제 형태와 시간 분배 연습을 통해 실력을 완성하여야 한다. 인강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오답노트의 암기를 병행하도록 한다.
11~12개월 차	테마별 특강 + 최종 마무리 특강	이 시기에는 최종 마무리 특강을 통해 과목별 핵심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한다. 또한 특정 파트에 대해 불안감이 남아 있다면, 테마별 특강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해당 파트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이와 더불어 기출문제와 오답노트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효과적인 인강 학습 TIP

▣ 유해 사이트 및 메신저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인강을 수강하다 보면 일시정지 기능을 이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듣는다는 게 한없이 쉬게 되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강의 수강 도중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메신저 사용 등으로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해 사이트와 메신저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강의 집중모드 기능 등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다른 인터넷 창을 활성화할 수 없다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 전원이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집중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 온라인 스터디를 활용하자

인강을 혼자 진도에 맞추어 수강할 의지가 부족하다면, 온라인 스터디를 활용하자. 특히 국어 과목의 사자성어와 고유어 파트라든가, 영어 단어 암기는 스터디를 하지 않게 되면 확실히 게을러지기가 쉽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두기 위해 온라인 스터디 활용을 추천한다.

▣ 인강을 수강하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학습하자

인강도 학원 시간을 정하듯 매일 아침 8~10시, 수요일 저녁 7~9시와 같이 본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들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 없이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완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덧 강의 수강 기간이 종료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간혹 인강 수강 시간을 학원 시간표에 맞추어 실강 진행일 다음날 해당 진도를 반드시 수강하겠다고 빠듯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보통 인강은 실강이 진행된 후 1~2일 이내 업로드가 되지만, 가끔 파일 변환 작업 등의 오류나 지연 등으로 업로드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강 진행일로부터 2~3일 이후 인강을 수강하는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실전을 미리 경험하는 모의고사

(1) 모의고사, 꼭 봐야 할까?

매달 정기적으로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해야 하는지 수험생으로서는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도 합격수기를 읽어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모의고사에 응시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은 응시하지 않았다는 수험생들도 있다.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시험에 미리 응시해 봄으로써 수험생의 개인 성적 및 통계 분석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쯤 인지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습 계획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분위기를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시간 안배 및 시험 치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그러나 간혹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여 좌절하거나 또는 자만심을 가지는 수험생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의고사 점수는 단지 실전으로 가는 길의 하나의 '과정'이나 '숫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모의고사를 응시하되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는 태입이라면 최대한 감정을 컨트롤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 모의고사 응시의 장점

- 본인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합격을 위한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나의 성적 위치를 분석할 수 있다. 나의 현재 성적 위치와 회차별 성적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영역별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다. 과목의 영역별 분석을 통해 본인의 취약점을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집중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다.
- 시험 치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 시험에서 실패하는 요인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 못지 않게 요령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 시험장에서는 사소한 부분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시간 안배하기, 모르는 문제를 과감히 포기하기,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시험 치기 등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 실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모의고사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마킹 실수 등 불합격 요소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실전에서 답안을 밀려쓰거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못하는 등의 실수가 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다.

“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이다.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wasted time.

- 메이슨 쿨리 -

”

3. 과목별 공부 방법

(1) 국어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자료: 2021~2015.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기준

대단원	소단원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계	비율	
문법	국어 문법	3	3	4	3	5	3	5	26	18.6	
	어문 규정	1	1		2	2	2	3	11	7.8	
	정서법	1	1		1		1		4	2.8	
	소계	5	5	4	6	7	6	8	41	29.2	
어휘	어휘					1	1		2	1.6	
	한자	2	3	1	2	3	2	2	15	10.7	
	소계	2	3	1	2	4	3	2	17	12.3	
독해	비문학	국어의 활동	2	2	3	3		3	3	16	11.4
		글의 독해	7	7	6	4	2	4	4	34	24.3
	소계		9	9	9	7	2	7	7	50	35.6
	문학	현대 문학	2	2	4	2	5	3	1	19	13.6
		고전 문학	2	1	2	3	2	1	2	13	9.3
	소계		4	3	6	5	7	4	3	32	22.9
	합계		20	20	20	20	20	20	20	140	100

○ 2021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 국어 총평

2021년 국가직 9급 국어 과목의 난이도는 작년과 같이 매우 평이했다. 이전 시험과 비슷하게 국어 문법 5문제, 어휘·한자 2문제, 비문학 9문제, 문학 4문제가 출제되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비문학 출제 비율이 높았고, 어휘·한자 영역의 출제 비율이 낮았다.

문법 영역은 통사론 3문제, 한글 맞춤법 1문제, 정서법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를 통해 문법과 어문 규정 영역이 단골 문제임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어휘 영역에서는 한자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으나 기본적인 내용의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한자를 꾸준히 공부했던 수험생들에게는 쉬웠을 것이다.

비문학 영역의 경우 올해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독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작년과 비슷한 비중으로 말하기 방식 2문제, 전개 방식 2문제, 추론 4문제, 배열 1문제 등 총 9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작년에 비해 지문이 길지 않아 시간 배분에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문의 난도도 평이해 꾸준히 독해 문제를 풀어 왔던 수험생들이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문학 영역은 현대 문학 2문제, 고전 문학 2문제로 작년에 비해 비중이 높아졌다. 현대 문학에서는 시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소설의 형식에 대한 문제가 각각 1문제씩 나왔고, 고전 문학에서는 운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네 문제 모두 평이한 수준으로 평소 지문을 읽는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② 영역별 출제 유형 분석

국어는 각 영역별로 출제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문법(국어 문법·어문 규정·정서법), 어휘(한자 포함), 비문학, 문학의 각 영역에 따라 자주 출제되는 대표 유형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니 주의해야 한다.

국어 문법

▣ 유형 분석

품사 분류·형태소 분석·합성어와 파생어 구별 등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데, 간혹 시제나 존칭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문법은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한다.

□ 출제 사례

㉠, ㉡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짝지은 것은? 2021. 국가직 9급

용언의 불규칙 활용은 크게 ㉠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어간과 어미 둘 다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① ㉠ 걸음이 빠름, ㉡ 꽃이 노람
- ② ㉠ 잔치를 치름, ㉡ 공부를 합
- ③ ㉠ 라면이 불음, ㉡ 합격을 바람
- ④ ㉠ 우물물을 푼, ㉡ 목적지에 이름

정답 ④

해설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는 'ㄷ' 불규칙, 'ㅅ' 불규칙, 'ㅂ' 불규칙, 'ㄹ' 불규칙, 'ㅇ' 불규칙이고,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는 'ㄹ' 불규칙, '어' 불규칙, '오' 불규칙이다. '품'의 기본형인 '푸다'는 '우'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이름'의 기본형인 '이르다'는 어간 '이르-' 뒤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가 'ㄹ'로 바뀌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오답 분석 ① '노람'의 기본형 '노랑다'는 'ㅎ' 불규칙 활용을 한다. 어간과 어미 둘 다 불규칙하게 바뀌는 유형이다.

② '치름'의 기본형 '치르다'는 용언의 어간 '-ㄹ'이 어미 '-아/-어' 앞에서 탈락하는 '-ㄹ' 탈락이 일어나는 규칙 활용을 한다.

③ '바람'의 기본형 '바라다'는 규칙 활용을 한다.

어문 규정

□ 유형 분석

어문 규정에 맞는 표현을 찾거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을 찾는 형태로, 문제 유형은 대단히 단순하다. 어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헛갈리기 쉬운 표현은 따로 정리해서 자주 보아야 한다.

□ 출제 사례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2021. 국가직 9급

- ① 돌나물, 꼭지점, 페트병, 낚시꾼
- ② 흡입량, 구름양, 정답란, 칼럼난
- ③ 오뎅이, 싸라기, 법석, 딱다구리
- ④ 차간(車間), 화병(火病), 셋방(貰房), 곳간(庫間)

정답 ②

해설 한글 맞춤법 제11항, 제12항의 붙임 규정에 따라 한자어 형태소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경우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흡입량, 정답란'이 맞다. 그러나 고유어+한자어인 '구름양', 외래어+한자어인 '칼럼난'은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 오답 분석** ① 꼭지점→꼭짓점: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한자어로만 구성된 합성어나 외래어가 결합된 경우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그러나 '꼭지+점'은 '고유어+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③ 딱따구리→딱따구리: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3항 붙임 규정에 따라 '딱따구리'로 적는다.
- ④ 홑병→화병: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곳간, 셋방, 숫자, 뒷간, 찻간, 횡수'만이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 중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다.

정서법

□ 유형 분석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의미가 모호한 문장, 높임법의 사용,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출제되었던 표현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관련 기출도 잘 챙겨야 한다.

□ 출제 사례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2021. 국가직 9급

- ① 날씨가 선선해지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
- ②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 ③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 ④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정답 ①

해설 '날씨가 선선해지니'와 '책이 잘 읽힌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니'를 통해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고, '읽히다'가 피동사로 적절하게 쓰였다.

- 오답 분석** ②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이다.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일이다.'로 바꿔야 한다.
- ③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책임자를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와 같이 목적어를 넣어 주어야 한다.
- ④ '-과' 앞뒤의 병렬 구조가 어색한 문장이다.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을 진행하는 일에 아주 열성적이다.'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어휘

□ 유형 분석

순우리말, 관용어, 속담, 한자어, 한자 성어 등에서 문제가 골고루 출제된다. 단순히 의미를 묻는 형태를 비롯하여, 문장에서의 쓰임을 묻거나 같은 의미로 쓰이는 한자 성어 및 속담을 연결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 한자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출제 사례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2021. 국가직 9급

- ① 그분은 냉혹한 현실(現室)을 잘 견뎌 냈다.
- ② 첫 손님을 야박(野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 ③ 그에게서 타고난 승부 근성(謹性)이 느껴진다.
- ④ 그는 평소 희망했던 기관에 채용(賃用)되었다.

정답 ②

해설 야박(野薄)하다: 야멸차고 인정이 없다.

野薄(들 야, 얇을 박)

오답 ① 現實(나타날 현, 열매 실):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

분석 ③ 根性(뿌리 근, 성품 성):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

④ 採用(캘 채, 쓸 용): 사람을 골라서 씀.

비문학

□ 유형 분석

과거에 비해 작문·화법·독서와 관련된 문제 비중이 늘었으나, 비문학 영역에서는 지문의 독해 파트 출제율이 가장 높다. 정보 확인(일치·불일치), 단락 순서 배열, 글의 특징 파악, 이어질 내용 유추, 전제 찾기 등의 형태로 출제된다.

□ 출제 사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 국가직 9급

한 민족이 지닌 문화재는 그 민족 역사의 누적일 뿐 아니라 그 누적된 민족사의 정수로 서 이루어진 혼의 상징이니, 진실로 살아 있는 민족적 신상(神像)은 이를 두고 달리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국보로 선정된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성력(誠力)과 정혼(精魂)의 결정으로 그 우수한 질과 희귀한 양에서無比(無比)의 보(寶)가 된 자이다. 그러므로 국보 문화재는 곧 민족 전체의 것이요, 민족을 결속하는 정신적 유대로서 민족의 힘의 원천이라 할 것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그 과거 문화의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요. (㉠)는 말도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밝힌 예증이 된다.

- 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 ② 지식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 수 없다
- ③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 보아야 안다
- ④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통해 ㉠에 들어갈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작가였던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이 문화재로서 영국에서 지니고 있는 가치를 나타내는 말로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뒤처지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뜻이다.

② '지식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 수 없다'는 지식과 달리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③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 보아야 안다'는 사람은 걸로 봐서는 알 수 없고 오래 지내봐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학

□ 유형 분석

현대 문학에서는 시와 소설의 비중이 높으며 작품 감상의 관점, 표현상 특징 등 문학 작품의 이해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고전 문학은 현대 문학에 비해 출제율은 낮으나, 시조의 출제율이 높고 ‘한자·어휘’와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큰 비중은 아니지만 드물게 문학사나 문학 이론에 관련된 문제도 종종 출제되고 있다.

□ 출제 사례

다음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 국가직 9급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걸 사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긴 겨울을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쉬임 없이
한결같이

사노라면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겠는가

- 조병화, 「나무의 철학」-

- ① 문답법을 통해 과거의 삶을 반추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사물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겠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아픔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① 묻고 답하는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분석 ② 반어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③ 나무를 의인화한 것은 맞지만, 아픔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목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문법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꼽히는 영역 중 하나가 문법이다. 그 이유는 문법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하게 암기만 하기 때문이다. 문법의 각 영역인 음운론·형태론·문장론·통사론·화용론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예를 통하여 각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문 규정

옳은 것을 찾거나 그렇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대다수이므로 출제 유형이 굉장히 단순하다. 그러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필요하다. 어문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문법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에 예외 규정 위주로 암기하면 공부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어문 규정에 있는 예들은 자주 보면서 눈에 익히고, 헛갈리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양을 암기하기 보다는 적은 양을 매일 꾸준히 암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서법

문법과 어문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높임법의 사용,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등을 찾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예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문장을 유형별로 모아 두고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실력을 쌓는 데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어휘

어휘는 순우리말·한자어·속담·한자 성어·관용어 등 그 범위가 넓고, 시행처와 시행 연도에 따라 출제되는 어휘의 난이도도 천차만별이다. 매일 일정한 양을 정해 두고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암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시된 문장이나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어휘를 찾는 문제도 있으니 글의 맥락을 통해 어휘를 유추해 내는 훈련도 필요하다.

비문학

최근에는 비문학 문제의 비중이 많이 늘음에 따라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지문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문을 접하면서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최근 5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독해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반복해서 틀리는 유형은 따로 분류하여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학

최근에는 단순 분석이나 암기로는 풀 수 없는, 작품 전체의 감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스스로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별로 분석되어 있는 주제나 특징 등을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내고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실제 작품을 가지고 연습하면서, 이것을 문제에 적용하는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한 문제 풀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영어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자료: 2021~2015.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기준

대단원	소단원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계	비율
어휘	단어	2	2	2	2	2	2	2	14	10
	숙어	2	2	2	2	2	2	2	14	10
	소계	4	4	4	4	4	4	4	28	20
문법	동사				1		1		2	1.4
	태·시제	1		1	1			1	4	2.9
	가정법					1			1	0.7
	부정사, 분사, 동명사			1				1	2	1.4
	명사, 형용사, 부사								0	0
	접속사, 전치사, 관계사	1				1	1		3	2.1
	비교 구문								1	0.7
	특수 구문		1						1	0.7
	영작	2	2	2	1	2	1	2	12	8.6
	소계	4	3	4	3	4	3	4	26	18.6

독해	주제·요지 찾기	1	2	2		1	1		7	5
	제목 찾기	1	1	1	2	1	2	2	10	7.1
	빈칸 내용 추론	2	2	2	2	3	2	2	15	10.7
	지칭 추론									0
	내용 요약	1							1	0.7
	내용 파악·일치	2	2	2	3	1	3	2	15	10.7
	주어진 문장 넣기	1	1	1	1	2	1	2	9	6.4
	문단 순서 정하기	1	1		1	1	1	1	6	4.2
	무관한 문장	1	1	1	2	1	1	1	8	5.7
	연결사		1	1					2	1.4
	소계	10	11	10	11	10	11	10	73	52.1
생활 영어	생활영어	2	2	2	2	2	2	2	14	10
	소계	2	2	2	2	2	2	2	14	10
합계		20	20	20	20	20	20	20	140	100

○ 2021년 국가직 9급 영어 총평

2021년 국가직 9급 영어 과목의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으며, 지난 몇 년 간의 공무원 영어 시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문항을 살펴보면, 최근 7개년 동안 진행되어 온 시험과 영역별로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출제 유형에도 크게 변동이 없다. 다만 국가직 영어는 지방직 영어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더 길고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지방직 시험보다 높았을 것이다.

어휘 영역에서는 모두 유의어를 찾는 유형이 출제되었으며, 어휘와 동사구 문제가 고르게 출제되었다. 4문제 모두 빈출 어휘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출 어휘를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생활영어 문제는 두 사람이 적절한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대화를 완성하는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으며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문법 문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문법 영역에서는 다양한 문법 지식을 묻는 문제와 영어 표현 및 구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작형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2021년에는 명사절 접속사, 간접의문문의 어순, 현재완료 문제가 출제되었다.

독해 영역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2021년에는 총 10문항이 출제되었다. 주제나 제목 찾기, 내용 일치, 빈칸 내용 추론에 관한 문제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2021년 국가직 영어 시험에서는 간만에 심경 추론 문제 유형도 등장하였지만, 난이도가 평이해서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시사 문제를 포함한 생소하며 수준 높은 내용의 지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사회 이슈와 자본주의, 환경 등에 대한 비교적 난해한 내용의 지문이 나왔다. 지문 또한 길어졌고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나, 답에 대한 근거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유형별로 풀이법을 잘 정리하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 본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정답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어휘, 독해, 문법, 생활영어 모두 예측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기에 최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기본 학습을 충실히 하고 페이스 유지와 시간 배분을 잘 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것이다.

② 영역별 출제 유형 분석

어휘

□ 유형 분석

어휘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으로, 지문에서 밑줄 친 단어의 유의어를 고르는 방식이다. 수준 높은 어휘들이 자주 출제되므로, 기본 어휘 실력이 있더라도 공무원 빈출 어휘나 동의어 정리를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문 해석을 통해 단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문제들도 출제되므로, 단순 어휘 암기보다는 예문을 통해 어휘의 뜻을 유추해 보는 학습 습관도 필요하다.

□ 출제 사례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2021. 국가직 9급

Privacy as a social practice shapes individual behavior in conjunction with other social practices and is therefore central to social life.

- ① in combination with ② in comparison with
③ in place of ④ in case of

정답 ①

해석 사회 관행으로서의 사생활은 다른 사회 관행과 함께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중심이 된다.

해설 in conjunction with는 ‘~와 함께, ~와 협력하여’의 뜻으로 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in combination with이다.

생활영어

□ 유형 분석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맥락의 빈칸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으므로, 청자와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출문제에 나온 빈출 표현을 정리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어 표현을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출제 사례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21. 국가직 9급

A: Were you here last night?
 B: Yes. I worked the closing shift. Why?
 A: The kitchen was a mess this morning. There was food spattered on the stove, and the ice trays were not in the freezer.
 B: I guess I forgot to go over the cleaning checklist.
 A: You know how important a clean kitchen is.
 B: I'm sorry. _____

- ① I won't let it happen again.
- ② Would you like your bill now?
- ③ That's why I forgot it yesterday.
- ④ I'll make sure you get the right order.

정답 ①

해석 A: 어젯밤에 당신은 여기에 있었나요?
 B: 네. 마감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시죠?
 A: 오늘 아침 주방이 엉망이었어요. 음식이 가스레인지 위에 튀어 있었고, 제빙 용기도 냉동실 안에 있지 않았구요.
 B: 제가 청소 체크리스트 점검을 깜빡했나 봐요.
 A: 깨끗한 주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B: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② 계산서를 지금 드릴까요?
 ③ 그것이 내가 그것을 어제 깜빡한 이유예요.
 ④ 당신이 정확한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해설 주방의 상태가 엉망임을 지적하는 A의 말에 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는 B의 대답이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문법

□ 유형 분석 1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어법상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는 유형이다. 최근 선택지에서 다루는 문법 요소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문법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부터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까지 두루 출제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문법 학습이 필요하다.

□ 출제 사례 1

어법상 옳은 것은? 2021. 국가직 9급

- ① This guide book tells you where should you visit in Hong Kong.
- ② I was born in Taiwan, but I have lived in Korea since I started work.
- ③ The novel was so excited that I lost track of time and missed the bus.
- ④ It's not surprising that book stores don't carry newspapers any more, doesn't it?

정답 ②

해석 ① 이 안내서는 당신이 홍콩에서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 알려준다.

② 나는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일을 시작한 후 한국에서 살고 있다.

③ 그 소설이 너무 재미있어서 나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래서 버스를 놓쳤다.

④ 서점에 신문을 더 이상 두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해설 ② 'have + p.p. ~ since + 과거 시제'의 사용은 어법상 적절하고 태어난 시점은 과거이고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으므로 시제(과거 was born/현재완료 have lived) 역시 어법상 옳다.

① 간접의문문의 여순을 묻고 있다. 직접의문문은 의문사 다음 '동사+주어'의 구조이지만 동사 뒤에 의문문이 올 때에는 '의문사+주어+동사'의 여순이므로 should you visit는 you should visit로 고쳐 써야 한다.

③ 감정 표현 동사 exite의 주체가 사물(novel)이므로 exited는 exi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④ 부가의문문은 앞에 부정문이 있을 때 뒤에 긍정이 와야 하고 앞에 동사가 be동사일 때에는 be동사를 사용해야 하므로 doesn't는 is로 고쳐 써야 한다.

□ 유형 분석 2

문법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제시된 우리말을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여 영작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영작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은 문법 요소(동사 일치, 준동사, 태, 가정법, 관계사 등)를 염두에 두면서 문장 구조 및 어휘와 숙어 실력을 묻는 문제가 많으므로 함께 학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출제 사례 2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을 고르시오. 2021. 국가직 9급

- ① 나는 너의 답장을 가능한 한 빨리 받기를 고대한다.
⇒ I look forward to receive your reply as soon as possible.
- ② 그는 내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말했다.
⇒ He said he would rise my salary because I worked hard.
- ③ 그의 스마트 도시 계획은 고려할 만했다.
⇒ His plan for the smart city was worth considered.
- ④ Cindy는 피아노 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그녀의 아들도 그랬다.
⇒ Cindy loved playing the piano, and so did her son.

정답 ④

해설 ④ 'so + V + S(도치구문)'을 묻고 있다. 앞에 긍정문이 있으므로 so의 사용은 어법상 적절하고 일반동사 love를 대신하는 대동사 did의 사용과 시제일치(과거시제) 모두 어법상 옳다. 또한 약기명 앞에 정관사 the의 사용 역시 어법상 적절하다.

① 'look forward to ~ ing' 구문을 묻고 있다. 따라서 receive는 receiv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② 말장난(단어장난: rise vs. raise) 문제이다. 우리말의 '~을 올리다'의 영어 표현은 raise를 사용해야 하므로 rise는 raise로 고쳐 써야 한다. 물론, rise는 자동사이므로 뒤에 목적어(my salary)를 취할 수 없다.

③ 'be worth ~ing' 구문을 묻고 있다. 따라서 considered는 consider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참고로 'be worth ~ing' 구문에서 ~ing는 형태는 능동이지만 수동의 의미(이런 경우를 중간태라고 한다)를 지닐 수 있어 considering을 being considered로 고쳐 쓰지 않아도 된다.

독해

□ 유형 분석 1

지문에서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빈칸 추론형 문제는 글 전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어휘력과 문장 구성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유형의 문제는 지문의 빈칸에 적합한 단어나 구 또는 문장을 삽입하여 지문을 완성하는 형태로 출제된다.

□ 출제 사례 1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21. 국가직 9급

Social media, magazines and shop windows bombard people daily with things to buy, and British consumers are buying more clothes and shoes than ever before. Online shopping means it is easy for customers to buy without thinking, while major brands offer such cheap clothes that they can be treated like disposable items—worn two or three times and then thrown away. In Britain, the average person spends more than £1,000 on new clothes a year, which is around four percent of their income. That might not sound like much, but that figure hides two far more worrying trends for society and for the environment. First, a lot of that consumer spending is via credit cards. British people currently owe approximately £670 per adult to credit card companies. That's 66 percent of the average wardrobe budget. Also, not only are people spending money they don't have, they're using it to buy things _____. Britain throws away 300,000 tons of clothing a year, most of which goes into landfill sites.

- ① they don't need
- ② that are daily necessities
- ③ that will be soon recycled
- ④ they can hand down to others

정답 ①

해석 소셜미디어, 잡지 그리고 상품 진열장은 매일 사람들에게 사야 할 물건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영국의 소비자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옷과 신발을 사고 있다. 온라인 쇼핑은 고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주요 브랜드들도 두 세 번 입고 나서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처럼 취급이 되는 값싼 옷을 제공한다. 영국에서, 보통 사람들은 일 년에 1천 파운드 이상을 새 옷을 사는 데 소비하는데, 이는 그들의 수입의 약 4%에 달한다. 4%가 많다고 여겨지진 않겠지만, 그 수치는 사회와 환경에 대한 훨씬 더 걱정스러운 두 가지 경향을 숨기고 있다. 첫째는, 많은 소비자 지출이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영국인들은 현재 신용카드 회사에 성인 1인당 약 670파운드의 빚을 지고 있다. 이는 평균 옷 예산의 66%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쓸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1년에 30만 톤의 의류를 버리고, 그 대부분은 쓰레기 매립지로 들어간다.

- ①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 ② 생필품인
- ③ 곧 재활용 될
- ④ 그들이 타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해설 빈칸 완성 문제의 처음 시작은 항상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떠올리는 것이다. 주어진 지문은 영국인들이 불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데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이다.

□ 유형 분석 2

내용 일치 및 불일치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 또한 자주 출제된다. 내용 일치에 관한 문제는 독해 지문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였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따라서 내용의 특정 부분을 근거로 하여 묻는 문제가 많으므로 지문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출제 사례 2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021. 국가직 9급

The most notorious case of imported labor is of course the Atlantic slave trade, which brought as many as ten million enslaved Africans to the New World to work the plantations. But although the Europeans may have practiced slavery on the largest scale, they were by no means the only people to bring slaves into their communities: earlier, the ancient Egyptians used slave labor to build their pyramids, early Arab explorers were often also slave traders, and Arabic slavery continued into the twentieth century and indeed still continues in a few places. In the Americas some native tribes enslaved members of other tribes, and slavery was also an institution in many African nations, especially before the colonial period.

- ① African laborers voluntarily moved to the New World.
- ② Europeans were the first people to use slave labor.
- ③ Arabic slavery no longer exists in any form.
- ④ Slavery existed even in African countries.

정답 ④

해설 수입된 노동력의 가장 악명 높은 경우는 당연히 대서양 노예무역이고 이로 인해 농장 일을 시키려고 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신세계로 끌고 오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비록 가장 큰 규모로 노예제도를 시행했음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로 노예들을 데리고 온 유일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다. 즉, 초기의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예 노동력을 이용했고 초기 아랍 탐험가들 또한 노예 무역상이었으며, 아랍의 노예제도는 20세기에 도 지속되었고 실제로 여전히 몇몇 지역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몇몇 토속부족들이 다른 부족의 구성원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특히 식민지 시기 이전에, 노예제도는 또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관습이었다.

- ①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신세계로 이주했다.
- ② 유럽인들은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 ③ 아랍의 노예제도는 더 이상 어떤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노예제도는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존재했다.

해설 ④ 본문 마지막 문장에서 노예제도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관습이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① 본문 첫 번째 문장에서 농장 일을 시키려고 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신세계로 끌고 오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자발적으로 신세계로 이주했다'는 내용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본문 두 번째 문장에서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로 노예들을 데리고 온 유일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다고 했으므로 '최초의 유럽인'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본문 두 번째 문장에서 아랍의 노예제도는 20세기에 도 지속되었고 실제로 여전히 몇몇 지역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으므로 '더 이상 어떤 형태로 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어휘&생활영어

어휘 문제는 동의어, 문장 내 빈칸 채우기, 독해 지문 내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넣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 단순 암기식 학습보다는 예문을 통해 단어의 의미와 쓰임을 익히는 것이 좋다. 또한 필수 동의어나 파생어도 함께 정리하여 어휘의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 속의 중요한 구문과 표현도 학습하는 것이 좋다.

생활영어 문제는 상황에 따라 관용적으로 쓰이는 적절한 표현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문법

공무원 시험에서 문법 문제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모든 언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확실히 다져 두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며, 시험에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를 확실히 알고 그에 맞는 학습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예문을 통해 실제 문장에서의 문법 활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단순히 문법 학습에만 그치지 말고 영작이나 독해와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문법 문제는 철저히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 실력을 확실히 쌓은 후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좋다.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독해

많은 사람들이 독해를 단순히 읽고 해석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영어 시험은 읽고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즉, 독해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여 중심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다. 독해는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선별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접하여 영어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고 빨리 풀기 위해서 속독하는 훈련 역시 필요하다.

(3) 한국사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자료: 2021~2015.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기준

대단원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계	비율
한국사의 바른 이해						기록으로서의 역사		1	0.7
선사 시대와 국가의 형성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초기국가		동예	고조선	신석기	7	5
고대 사회의 발전	•유리왕 •삼국 발전 과정 •발해 수도 별 유적	•삼국 발전 과정 •진성 여왕 때 상황 •김유신	•발해 무왕 •신라 중대 경제	•광개토 대왕과 왜구 격퇴 •신문왕 •발해 계승 의식 •문무왕	•고구려 발전 •6두품	•백제의 발전 •고구려 소수림왕 •진골	•상장금지이유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 •의상과 원효	20	14.3
중세 사회의 발전	•안향 •성종 •향리	•최충현 •구제도감 •역사서	•인종 •시정 전시과 •삼국유사	•사회외의 외교담판 •필관회 •진화	•(우왕)「직지심체요절」 •숙종 때 경제 •홍수지리 사상	•충선왕 •경정 전시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성종 •사회 모습 •농민의 생활	21	15
근세 사회의 발전	•세조 •조광조	동문선	•성종 •정치 제도 •서원	•중종 •훈일강리역 •대국도지도 •성리학	•5가적통법 •정도전	•임진왜란 주요 전투 순서 •이항	•전기 중앙 정치 •전기 향촌 사회 •과전법	16	11.4
근대 사회의 태동	•이양범	•서얼과 중인 •향진 •동학	후기 경제	정조	•16~18세기 사실 •후기 경제 •홍대용	•후기 사회 모습 •대동법	•영조 •중인 •후기 경제	14	10
근대 사회의 전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흥선 대원군 •개항기 무역	•동도서기 •흥선 대원군 집권기	•외세와의 조약 •동학 농민 운동 •시기별 사건	•동학 농민 운동 •농광 회사	•「현의 6조」 결의문 이후 •갑신정변 이후 •군대해산 이후 •국권 침탈 과정	•갑신정변 •개항기 통상 협약 •대한 제국 시기	•동학 농민 운동 •대한국 국제 •1907년 이후 사건	20	14.3
민족의 독립 운동	•중·일 전쟁 이후 민족 말살 정책 •국민 대표 회의 •토지 조사 사업	•치안 유지 법 시기 상황 •임시 정부의 대일 선전 포고문 •동아일보	•3·1 운동 이후 사건 •한국 독립군 •박은식	•국가 중흥 원법 •토지 조사국 •일제 강점기 생활 모습	•국민 대표 회의 •손진태 •하와이 지역의 민족 운동	•1920년대 만주 독립 운동 •의열단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 비밀결사(독립의군부, 대한 광복회)	19	13.6
현대 사회의 발전	•유신 헌법 시기 사건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	•미군정기 상황 •1980년대 경제	해방 공간 사건	•이승만과 김구 •김종필 오히려 메모와 브라운 각서 사이의 경제 모습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6·25 전쟁 사건 •광복 이후 사건	10	7.2
통합	•시기별 대외 교류 •세계 문화유산과 기록 문화유산	•독도 •한성	•단군 인식 •문화유산	역대 지방 행정 제도	•독도 •의주	풍수지리설	역대 농서	12	8.5

○ 전 시대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고 있다.

최근 7년간 출제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특정 시대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 시대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다. 2021년 국가직 9급에서는 전근대사에서 12문제(60%), 근현대사에서 8문제(40%)가 출제되었다.

○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은 따로 있다. 예를 들면 통일 신라 중대와 하대의 성격 변화, 민정 문서, 고려 광종과 성종, 공민왕의 업적, 고려 집권 세력의 성격, 고려 대외 관계, 신진 사대부의 성격, 15세기 조선의 주요 왕, 사림파의 성격, 봉당 정치, 18세기 조선의 주요 왕, 대동법과 균역법, 실학자, 조선 후기 경제·사회·문화의 변화, 흥선 대원군의 정책,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 광무개혁의 성격, 일제 식민 통치 내용과 민족 독립운동 사건 순서, 해방 공간의 국제 회담 및 주요 사건, 통일 정책, 독도 등이 반복 출제되고 있다.

○ 정치사 관련 문제가 압도적인 가운데 사회·경제·문화사를 묻는 문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각 시대의 대표적인 주요 세력(진골 귀족과 6두품,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 훈구파와 사림파, 위정척사파와 개화사상가 등), 일반 백성의 사회·경제적 생활, 고려와 조선 여성의 지위 변화, 역대 토지 제도의 변화,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변화(대동법, 균역법),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로 인한 신분제의 동요, 문화의 새로운 경향 등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 이해력과 논리적 추론을 요하는 수능 유형의 통합적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분류사적 접근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정전과 관수 관급제의 공통된 실시 목적, 기본 개념 간의 상호 관계, 풍수지리 설과 도교가 각 시대에 끼친 영향, 나말여초 호족과 여말선초 신진 사대부의 공통점, 정조와 흥선 대원군의 공통점, 역대 주요 역사서의 성격, 신라와 고려의 불교 변화, 공민왕·조광조·갑신정변 개혁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보는 통합형 문제 등이 주목된다. 또 4세기 신라와 고구려의 우호적 관계를 알 수 있는 근거, 흥선 대원군의 업적을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켜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분석하는 문제 등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문제가 출제된 점이 주목된다.

○ 사료와 지문을 통해 기본 개념을 확인하고 역사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한 시대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는 적절한 사료나 지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유도하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보이는 게 특징이다. 2021년에도 원문 사료 관련 문제와 자료 응용 문제가 각 8문항씩 출제되었다. 또 주요 개념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우선 박스 안에 자료로 제시되어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선택지에서 맞는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② 출제 유형 분석

□ 개념·원리의 이해

한국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개념·원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이다. 가끔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되기도 한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직 9급

- ①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 ② 농지 개혁에 따른 지가증권을 발행하였다.
- ③ 제분, 제당, 면방직 등 삼백 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 ④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정답 ④

해설 ④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 군사 정부 때 추진되었다.

□ 사건 순서 나열

사건을 시대순으로 정확하게 나열하는 문제 유형이다. 정확한 연도보다는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지 묻는 유형이다.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9. 국가직 9급

- (가)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다.

- ① (나) ⇨ (가) ⇨ (라) ⇨ (다) ② (나) ⇨ (다) ⇨ (가) ⇨ (라)
- ③ (다) ⇨ (가) ⇨ (나) ⇨ (라) ④ (다) ⇨ (나) ⇨ (가) ⇨ (라)

정답 ②

해설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1945. 8.) ⇨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개최(1945. 12.) ⇨ (가) 좌우 합작 7원칙 발표(1946. 10.) ⇨ (라) 남북 협상(1948. 4.)

□ 자료 분석 및 해석

자료, 도표, 그림 등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 수능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그 출제 비율이 높다.

다음 상소문을 올린 왕대에 있었던 사실은? 2021. 국가직 9급

석교(釋敎)를 행하는 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理國)의 근본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資)요, 이국은 금일의 요무(要務)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 ① 양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 ② 균여를 귀법사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하였다.
- ③ 국자감에 7재를 두어 관학을 부흥하고자 하였다.
- ④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는 경정 전시과를 실시하였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 내용이다.

- ① 성종 때 개경·서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 ② 광종, ③ 예종, ④ 문종 때 일이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

기본서를 바탕으로 중요한 기본 개념과 역사적 사실,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전 시대에 걸친 종합적인 이해

단순 암기보다는 전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통찰하여 시대별 역사를 상호 비교·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습하는 것이 좋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흐름을 시대별로 연결지어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연표를 철저히 활용하여 시대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초기 연맹 왕국 ⇨ 삼국 시대 ⇨ 고려 ⇨ 조선 ⇨ 현대로 가면서 겪게 되는 전환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므로 당시 우리 민족의 과제 및 기득권층과 민중들의 사회 변화 대처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도록 한다.

자료를 분석·해석하는 능력 제고

단순한 단답형 문제보다는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가 주요 출제 유형이므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세운 뒤 다양한 사료와 지도, 그래프, 화보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새로운 이론과 시사 분야 학습

시험 전 새롭게 제시된 이론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영토 문제(간도와 독도), 북한의 핵 문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 새롭게 진행되거나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야도 시험에 종종 출제되니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

기출문제로 시험 유형 파악

공무원 한국사 시험은 이전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하여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출문제를 통해 기본서로 학습한 부분의 출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응용력과 더 넓게는 역사를 보는 유연성도 키울 수 있다.

(4) 행정학개론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자료: 2021~2015.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기준

대단원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계	비율
행정학 총론	4	3	1	4	3	3	4	22	15.7
정책론	3	5	4	3	4	5	5	29	20.7
조직론	5	4	6	4	4	2	3	28	20
인사행정론	2	3	3	4	5	4	3	24	17.1
재무행정론	3	3	3	4	2	4	1	20	14.3
정보사회와 행정						1	1	2	1.4
행정환류론	1		1				1	3	2.1
지방행정론	2	2	2	1	2	1	2	12	8.6
계	20	20	20	20	20	20	20	140	100

※ 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대단원별 출제 경향

국가직 9급 시험은 대체로 행정학 총론과 정책론,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이 주로 출제된다. 행정학 총론에서는 행정학의 전반적인 내용(행정의 개념, 행정학의 발달과 주요이론, 가치 등)이 출제되고, 정책론에서는 정책의 유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 또한 조직론에서는 조직의 효과적인 관리방법과 우리나라 공공조직에 관한 문제 등이 출제되고, 인사행정론에서는 공직구조의 체계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다. 재무행정론에서는 예산과정 이론과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이 출제된다.

○ 2021 국가직 9급 총평

필수과목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2021년 국가직 9급 행정학 시험은 대부분의 문제가 무난하게 출제되었고, 1~2문제 정도만 잘 출제되지 않았던 이론이나 구체적인 법령 문제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도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문제가 등장하였으나, 정답을 제외한 선지들이 쉽게 구성되어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소한 이론 문제로 '공공봉사동기이론'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공무원 행정학 학습에서 항상 강조되어 온 개념 중 하나이므로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최신 기출문제 풀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지방자치파트에서 지방자치법 관련 내용이 두 문제가 출제된 점이 특히 눈에

된다. 앞으로 이런 경향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인해 이에 대한 출제자들의 관심이 증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번 ‘공공봉사동기이론’을 제외한 모든 문제들의 난이도가 2020 국가직 9급 시험에 비해 훨씬 쉬운 편이었으며, 예년의 평균 수준으로 보아도 난이도가 낮았다. 난이도는 주기에 따라 달라지고, 국가직이 쉬었다면 지방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에 기준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최근 출제된 기출 주제들을 파악해 학습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② 출제 유형 분석

□ 참·거짓 판별 문제 유형

참·거짓 판별 문제는 행정학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어떤 개념에 대해 올바르게 서술한 문장이나 옳지 않은 내용을 서술하여 틀린 문장을 찾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평소 예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반된 개념이 있는 경우 출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뜻을 이해해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직 9급

-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최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X] 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될 때까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지출의무의 이행, 승인된 사업의 계속(모든 예산 X)에 한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① [O]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7조).
- ② [O] 헌법상 독립기관이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④ [O] 국회는 국가결산보고서의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최(9.1.)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관련 내용 연결 문제 유형

행정학 시험은 하위 유형들과 그에 해당하는 설명이나 예시를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이전에는 하나의 유형만 확실하게 이해해도 문제를 풀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유형별 설명과 예시를 각각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관련 내용 연결 문제는 최근 출제 유형이므로, 하위 개념들을 여러 가지로 유형화하여 구성한 부분은 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이론을 옳게 짝지은 것은? 2020. 6. 서울시 9급

- ㄱ. 집단 동조성과 제한된 결속력은 외부인을 암묵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구성원의 사적 자유를 제한하게 한다.
- ㄴ. 공익이나 시민 간의 담론을 통합하는 기능에 관료의 역할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	ㄴ
① 사회자본론	신공공서비스론
② 사회자본론	신공공관리론
③ 뉴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
④ 뉴거버넌스론	신공공관리론

정답 ①

해설 ㄱ은 사회적 자본론, ㄴ은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이다.

ㄱ. 사회적 자본은 종전의 인적·물적 자본, 즉 경제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 그러나 지나친 결속성이나 폐쇄성이 동조성이나 집단규범의 강요로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ㄴ.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추구하려는 시민의 적극적 역할과 의욕을 존중하며, 시민에게 힘을 실어 주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구성원들을 통합시키는 방법이 사회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정부나 관료의 역할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은 물론, 시민 간 담론을 통한 공익의 도출을 돕고 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내용 분류 문제 유형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행정학의 이론들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또는 ‘~에 해당하는 것은?’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함께 묶어서 숙지하도록 한다.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1. 국가직 9급

-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 ㄴ. 국회의 국정조사
-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① ㄱ, ㄷ, ㅁ, ㅅ

② ㄴ, ㄷ, ㄹ, ㅁ

③ ㄴ, ㄹ, ㅁ, ㅇ

④ ㄴ, ㄹ, ㅂ, ㅇ

정답 ④

해설 ④ [○] 외부통제란 정부관료제(행정부)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한 통제를, 내부통제란 정부관료제(행정부) 내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국회의 국정감사(ㄴ) ⇒ 입법부에 의한 통제,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ㄹ) ⇒ 사법부에 의한 통제,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ㅂ) ⇒ NGO에 의한 통제, 언론의 공무원 부패보도(ㅇ) ⇒ 언론에 의한 통제'는 정부관료제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한 통제로 외부통제에 속한다.

■ 개념 확인 문제 유형

개념 확인 문제 유형은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에 부합하는 개념을 찾거나, 특정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에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문제를 읽는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실험에서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2021. 지방직 9급

사전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측정 내용에 대해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측정 때 실험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며,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① 검사요인

② 선발요인

③ 상실요인

④ 역사요인

정답 ①

- 해설**
- ① [O] 내적타당성 저해요인 중 검사요인(측정요인)에 해당한다. 검사요인은 측정 그 자체가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동일한 시험문제를 사전·사후에 사용하게 되면 사후 시험에서는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전 측정을 하지 않는 등 눈에 띄지 않는 관찰방법 등이 필요하다.
 - ② [X] 선발요인은 조사자가 자의로 실험집단을 배정하거나 지원자를 신청 받아 실험 집단을 구성할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서로 다른 구성원이 할당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③ [X] 상실요인은 실험기간 중 실험집단의 일부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해 남아있는 실험집단 구성원이 최초와 다른 특성을 가짐에 따라 발생한다.
 - ④ [X] 역사요인은 실험기간 동안에 일어난 비의도적인 사건 발생이 실험에 영향을 미쳐 대상 집단의 특성이 변화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순서 연결 문제 유형

순서 연결 문제는 보통 이론의 발달 순서나 실현 과정, 수립 절차 등을 묻는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므로 한 번만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로 구성된 부분은 평소에 눈여겨보도록 하고, 논리적 전후 관계 파악을 확실하게 하도록 한다.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Maturity)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 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2019. 서울시 9급 추가

(가) 참여형	(나) 설득형	(다) 위임형	(라) 지시형
① (다) ⇨ (가) ⇨ (나) ⇨ (라)	② (라) ⇨ (가) ⇨ (나) ⇨ (다)		
③ (라) ⇨ (나) ⇨ (가) ⇨ (다)	④ (라) ⇨ (나) ⇨ (다) ⇨ (가)		

정답 ③

- 해설**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이 지시형 ⇨ 설득형 ⇨ 참여형 ⇨ 위임형으로 나아가야 조직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제도 및 이론 비교 문제 유형

행정학의 많은 이론과 제도들은 기존의 것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반되는 개념들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 국가직 9급

- ①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가치는 신뢰(trust)이다.
-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기구는 시장(market)이다.

정답 ①

- 해설 ①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기존의 행정국가체제와는 달리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를 강조한다.
- ② [×]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인 데 비해, 뉴거버넌스의 인식론적 기초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이다.
- ③ [×]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가치는 결과(outcomes)이며, 뉴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관리가치는 신뢰이다.
- ④ [×] 신공공관리의 관리기구는 시장이며, 뉴거버넌스의 관리기구는 신뢰, 협력을 기반으로한 연계망(network)이다.

□ 법령 문제 유형

행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에서는 법령 문제가 자주 출제되며, 특히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더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단, 기존에 출제되었던 법령들은 모두 숙지하고 새로 개정된 법령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바로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직 9급

-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X]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하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 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① [O]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지방공직자에 대한 해임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제도이자 주민 통제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논란 끝에 가장 늦은 2007년도에 도입되었다.
- ② [O] 모든 자치단체장,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등이 소환대상이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③ [O] 주민소환제도는 선출 이후에도 주민에 의하여 감시받는다는 심리적 통제효과가 크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행정학은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보다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론 전체를 공부하려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즉, 쓸데없는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공부 범위를 잘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행정학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반복되어 출제되지 않고, 새로운 문제들로 바뀌어 출제가 되고 있다. 행정학이 공무원 9급 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서를 통해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학습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기출 주제 중심으로 공부하되, 최근 5년간 출제된 주제에 대해서는 심화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등 새롭게 개정된 법령의 경우는 그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암기해야 한다.

(5) 행정법총론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자료: 2021~2015.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기준

대단원	소단원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합계	비율(%)
행정법총론	행정							1	1	0.7
	행정법	2	2	2	2	3		1	12	8.5
	행정상 법률관계					1	1	2	4	2.9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1	1		1		4	2.9
	소계	2	3	3	3	4	2	4	21	15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2	1	1	2	1		1	8	5.7
	행정행위	3	4	3	3	3	5	4	25	17.8
	비권력적 행정작용	1		1	1	2	1		6	4.3
	행정계획	2	1					1	4	2.9
	행정절차		1	1	1	1	1	1	6	4.3
	정보공개와 개인 정보보호	2	1	1	1	1	1	1	8	5.7
	소계	10	8	7	8	8	8	8	57	40.7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	2	2	2	2	2	1	3	14	10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1			1		1		3	2.1
	행정벌		1	1		1	1		4	2.9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소계	3	3	3	3	3	3	3	21	15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배상	1	1	1	1	1	1		6	4.3
	행정상 손실보상					1			1	0.7
	행정심판	1	1	1	1		1		5	3.6
	행정소송	3	4	5	4	3	5	5	29	20.7
	소계	5	6	7	6	5	7	5	41	29.2
행정조직법										
합계		20	20	20	20	20	20	20	140	100

○ 하(下) 난이도의 출제

2021 국가직 행정법총론 시험은 전체적으로 하(下) 난이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문제가 기존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고 몇 문제만이 새로운 내용에서 출제되었다. 16문제가 판례 문제로 출제되었으며 약 4문제가 조문과 이론에 관한 문제였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체감 난이도가 다소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분야별 출제 분석

행정법통론 부분에서는 행정법에서만 총 2문제가 출제되었다.

행정작용법 부분에서는 행정행위에서 3문제, 행정입법에서 2문제, 비권력적 행정작용에서 1문제, 행정계획에서 2문제, 정보공개와 개인 정보보호에서 2문제가 출제되어 행정작용법 단위에서만 총 10문제로 작년보다도 더 높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였다.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는 행정상 강제집행에서 2문제,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에서 1문제가 출제되어 작년과 동일하게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행정구제법에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에서 1문제, 행정심판에서 1문제, 행정소송에서 3문제가 출제되어 총 5문제가 이 단위에서 출제되었다.

2021년도 국가직 시험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단위에서 압도적인 출제율을 보였다.

② 출제 유형 분석

■ 간단한 이론 개념 묻기 유형

문제와 지문이 짧은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최근 출제 경향은 지문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 이 같은 단답식 문제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도록 하자.

□ 출제 사례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2020. 지방직 9급

- ① 기관소송
- ② 무효등확인소송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④ 취소소송

정답 ①

해설 ①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에 속하지만 항고소송은 아니다. 항고소송으로는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이 있다.

□ 법조문의 내용 확인 문제 유형

법과목의 특성상 법조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기본 이론의 내용이 법조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 이론의 명확한 숙지 및 최신 법조문을 곁에 두고 읽어 나가는 습관이 중요하다.

□ 출제 사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1. 국가직 9급

- ①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 ②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 ③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 ④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정답 ②

해설 ②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이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따라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재결이 아니다.

□ 판례 확인 문제

법과목의 특성상 판례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행정법 시험에서는 법조문 확인 문제와 함께 판례가 옳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판례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출제 사례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직 9급

- ①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 ④ 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③

해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판 2006. 5. 25, 2006두3049).

□ 사례형 문제

최근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에 대한 정답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이다. 평소 반복적으로 중요 판례를 읽는 습관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출제 사례

甲회사는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조건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甲은 위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 국가직 9급

- 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면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 ③ 甲에게는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甲이 앞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그 후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후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판 2014. 11. 27, 2014두37665). 따라서 행정청이 내린 공사중지명령이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甲이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다시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출제 경향과 출제 유형을 분석해 보았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법의 점수를 고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 개념

행정법에서는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입문하는 과정에서 법학 용어가 생소하여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주요 법률 용어들과 기본적인 개념들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기본서를 여러 번 회독하는 과정을 통해 입문 과정을 극복할 수 있다.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쌓아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최신 법조문 및 판례

법과목이라는 특성상 법조문과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행정법은 이론 내용에 해당하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법조문은 개정이 자주 되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으로 개정된 최신 법조문을 확인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다.

최근 행정법 시험은 최신 판례를 상당히 비중 있게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새로운 판례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만큼 경험 많은 강사가 선별하는 최신 판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으며, 학원에서 열리는 판례 특강과 같은 수업을 활용하는 것도 혼자서 판례를 정리하는 것 보다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행정법의 출제 유형을 살펴보면 박스형 문제, 사례형 문제, 법조문 확인 문제, 판례 확인 문제 등 여러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출문제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법은 기출문제가 가장 정직하게 반영되는 과목이라 기출문제를 섭렵하면 대부분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시험 출제가 기출문제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 이론을 공부한 후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익히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전체적인 행정법의 틀 잡기 및 반복 학습

행정법은 내용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론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입문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아준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장기적인 면에서 행정법을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

행정법은 전공과목이므로 짧은 시간에 정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꾸준한 공부로 2순환, 3순환 반복을 하면서 행정법을 알아가야 합격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다. 우선 기본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회독 수를 충분히 늘린 후에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다면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틀린 문제나 헛갈렸던 문제들을 위주로 반복하는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다양한 예상문제 및 모의고사로 실전능력을 기른다면 행정법에서 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알짜배기 그룹 스터디 전략

혼자 공부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공부 페이스도 잃기 쉽다. 합격생들의 합격수기를 읽어 보면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스터디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룹 스터디에 대해 알아보고 똑똑하게 활용해보자.

(1) 생활 스터디

공부 패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침 출석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출석을 했는지 확인하고 지각자가 있을 시에는 벌금 등을 걷는다. 점심때는 함께 점심 식사 후 오후 공부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체크한다. 만약 아침 출석이나 점심 출석 때 모두 결석하면 가중해서 벌금을 걷고 모은 돈으로 공통의 학습 자료(프린트물, 제본)를 구입하는 데에 쓰거나 간식 등을 사서 함께 나누어 먹는 용도로 사용한다.

(2) 문제풀이 스터디

주1~2회 정도 일정 시간에 모여 2시간 정도 문제풀이 스터디를 진행한다. 문제풀이 스터디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학원 게시판 이용, 학교 게시판 이용, 온라인 카페 이용 등의 방법이 있다. 스터디원은 서로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구성하기보다는 서로 약간 어렵고 성실한 타입의 수험생 몇 명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다 보면 간혹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과목을 정해서 번갈아가며 문제를 만들어 오고 출제자와 비출제자 모두 함께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푼다. 채점 후 오답을 체크하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여 해결한다.

(3) 기본서 회독 점검 스터디

2~3명의 수험생(기본서를 같은 것으로 보는 수험생끼리 모이는 것이 좋다)이 해당 일자에 읽어야 할 기본서 분량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각자 자습 후 일정 시간에 모여 기본서를 꼼꼼히 정독하고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스터디이다. 예를 들어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이 30페이지라면 해당 페이지를 읽고 서로 모여서 한 사람은 책을 덮고 한 사람은 책을 보면서 해당 범위에서 짧은 문제를 내 본다.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잘 읽고 학습했다면 어느 정도 맞힐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스스로 해당 분량을 다 읽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벌금을 걷고, 문제를 냈는데 5문제 이상 틀리는 경우에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벌금을 걷는다. 향후 벌금을 모아 기본서 1회독, 2회독, 3회독이 끝나는 날 책거리 형식으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서 먹으며 이번 회독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한다.

(4) 밥터디

점심, 저녁 등 식사시간에만 짧게 30분 정도 만나 식사를 함께하면서 그날 그날 공부한 내용 중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거나 자신이 만든 암기법 중 참신하고 알려주고 싶은 것 등을 공유하면서 혼자 식사하는 외로움을 덜기 위한 스터디 + 밥(식사) 형식의 모임이다. 혼자 식사를 하기 힘들어하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타입의 수험생은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 또 그날그날 학습한 부분을 피드백할 수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막고 서로 질문과 답변 등을 통하여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5) 단어 시험 스터디

매일 또는 주 1~2회 정도 만나 영어 단어나 한자어(한자성어 포함) 등 주로 암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시험을 보고 채점한다. 사전에 하루 공부할 분량을 영어 단어장 Day1 혹은 영어 단어 50개 / 한자어 50개 등으로 정하고 시험일에 서로 돌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해 온다. 수기로 적은 문제를 복사해도 좋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편한 사람은 프린트를 해와도 된다. 제한 시간 20분 등 시험 시간을 짧게 정해 놓고 단어를 잘 외웠는지 테스트한 후 그날 단어 시험에서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이 스터디원에게 시원한 음료수 혹은 커피를 사주는 것으로 벌칙을 정해도 좋다. 모여서 시험을 치르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까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스터디에 있어 시간은 금이다!

4. 공부 계획 세우기

(1) 공부 계획, 왜 필요한가?

① 수험 생활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공부 습관

1년 정도의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가장 빨리 공부 습관을 잡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 이미 수험 생활 패턴과 공부 습관이 몸에 익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던 대로 꾸준히 공부하면 된다. 그러한 독자들은 이미 절반 이상은 성취를 거둔 상태라 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독자가 있다면 일단 책을 읽으면서 2시간 정도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습관부터 몸에 익혀야 한다. 이러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공부 계획 세우기’와 ‘공부 일기 쓰기’이다.

② 공부 계획 세우기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는 내가 목표로 하는 시험일로부터 현재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아 있는가이다. 그 기간 내에 합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가령 시험일로부터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큰 틀에서 연간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1년의 큰 테두리에서 목표를 정하고 월간, 주간, 일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간 계획표를 작성할 때에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보다는 비교적 세분화하여 자신의 학습 역량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영어가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영어 성적을 합격권 내(85점 이상)로 끌어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월간, 주간, 일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간(시험일로부터 현재까지 역산한 기간)과 자신의 현재 학습 수준(과목별 성취 수준)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월간 계획표를 작성할 때에는 한 달간을 기준으로 주요 스케줄(실강·인강 개강일, 모의고사, 스터디 일정)을 적고 그 외에 공부 가능한 날짜를 파악해야 한다. 월간 목표를 설정해서 해당 월에 중점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목표를 적어 둔다. 그런 다음에는 월간 계획표를 바탕으로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면 된다. 주간 계획은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1주를 단위로 중점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공부 습관 형성을 위한 일간 계획표를 작성하자. 하루의 계획은 크게 아침 공부, 오후 공부, 저녁 공부 정도로 나누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침에 일어난 이후 대략적인 공부 시작 시간을 설정해 두고 꼭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타임 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시험 막바지로 접어들게 되면 공부 분량을 집중적으로 늘려야 하므로 새벽이나 취침 전 등 자투리 공부 시간을 설정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③ 공부 일기를 쓰자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 습관, 패턴을 만들려고 크게 마음먹지만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행동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행동을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물이 끓는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0℃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일정한 열이 가해져야 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부 시간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좋은 공부 습관을 들여야만 스스로 공부하는 타입의 수험생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의지력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부 일기 쓰기를 추천한다. 하루 동안 자신이 공부한 시간과 과목, 공부한 단원명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8/20 오전 8:50~ 10:00 / 영어 / 완전자동사와 불완전자동사 / 문법 요점 정리, 확인 문제 풀이 7문제, 이러한 형식으로 자신이 진짜 집중해서 공부한 순수 시간만을 1일 기준으로 적어 내려간다. 이것이 습관처럼 굳어지게 되면 자신이 하루 얼마 정도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지, 무슨 공부를 주로 하고 취약한 과목은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합격 플래너 꼼꼼 활용법

① 합격의 큰 그림을 그려라(연간 계획표 작성하기)

1년 단위의 연간 계획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내가 목표로 한 시험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보통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 해에 2번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시험이 그것이다. 이런 중요한 일정들은 연간 계획표에 표시하는 것이 좋다. 면접 준비, 면접 시험 일자 등도 꼼꼼히 체크해 두면 도움이 된다. 다음은 자기가 목표로 한 시험까지 수험 기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계산해서 큰 틀에서 기간 분배를 해야 한다. 가령 2개월 정도는 기본서 1회독과 기본 이론을 정리하겠다는지 기본 이론 중에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선정하겠다는지 목표를 정한다. 그 뒤에 4개월 정도는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심화 이론을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회독 수를 늘려 나가겠다고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 Yearly PLAN 🐼

월	주요 일정
1	·심화이론 정리/집중 정리(5과목) ·3개월 집중 자기 주도 학습
2	·실전 문제 풀이(5과목) ·합격예측 모의고사
3	·실전 문제 풀이(5과목) ·합격예측 모의고사
4	*국가직 응급 필기시험 ·막판 총정리! ·면접 준비
5	·막판 총정리! ·전범위 모의고사 풀이 or 파이널 시리즈로 정리
6	·막판 총정리! ·전범위 모의고사 풀이 or 파이널 시리즈로 정리 *지방직 응급 필기시험/서울시 응급 필기시험
7	면접 스터디, 특강 등
8	·기본이론 정리, 기본서 회독 ·종합반 2개월 집중 코스
9	·기본이론 정리, 기본서 회독 ·종합반 2개월 집중 코스
10	·심화이론 정리/집중 정리 ·집중적인 자기 주도 학습!
11	·심화이론 정리/집중 정리 ·취약 과목 집중 정리!
12	·취약 과목 집중 정리! ·회독 수 늘리기!

① 연간 계획표 작성하기

② 과목별 학습 계획을 잡아라(과목별 플랜 작성하기)

과목별 필수교재는 기본서 1권과 기출문제집 1권이 적당하다. 필요에 따라서 모의고사 등 실전테스트용 문제집을 한 권 정도 더 구비해도 좋다. 과목별로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2개월 동안 기본서를 1회독하기로 했다면 총 기본서 페이지를 공부 일수로 나누어서 하루에 볼 분량을 대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출문제를 병행하면서 기본 개념을 익힌 뒤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하고 자신이 부족한 개념, 이론, 내용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 시험은 ‘시험’을 위한 공부이지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실제 출제 유형에 적합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습 목표는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본서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하기, 최근 5개년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오답 체크하기,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하기 등 수치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학습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된다.

● 과목별 PLAN 

과목	교재	학습계획	목표
국어	국어 기본서 1권	·기본서 하루 25p씩 읽기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주1회 기출문제 점검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
영어	영어 기본서 1권	·기본서 하루 42p씩 읽기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주2회 기출문제 점검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영단어 Zip	·영단어 하루 40개씩 읽기	·모의고사 점수 70점 달성
한국사	한국사 기본서 1권	·기본서 하루 23p씩 읽기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주2회 기출문제 점검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
행정학	행정학 기본서 1권	·기본서 하루 27p씩 읽기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주1회 기출문제 점검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
행정법	행정법 기본서 1권	·기본서 하루 23p씩 읽기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주1회 기출문제 점검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

① 과목별 문제 풀이 작성하기

③ 월간 학습 계획을 세워라(월간 계획표 작성하기)

월간 계획표에는 주요 일정을 체크한다. 예를 들어 기본 강의 수강 시
작일, 모의고사 응시일, 스터디 일정 등 수험 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번 달 완성할 과목을 정
한다거나 이번 달에 성취할 목표를 기록한다. 영어 문법 8일 완성, 영
어 어휘 26일 완성, 독해 5일 완성 등 월간 주요 목표를 기록하는 것
이다. 이렇게 한 달 계획을 잡으면 중점적으로 그 달에 성취해야 할 목
표가 분명히 보일 것이다.

• MONTHLY PLAN ☀

Check the month	Monday 월	Tuesday 화	Wednesday 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4 어휘 (~ Day 6) 영어문법 (2챕터)	5 어휘 (~ Day 8) 영어문법 (2챕터)	6 어휘 (~ Day 10) 영어문법 (2챕터)
	11 어휘 (~ Day 18) 독해 (2챕터)	12 어휘 (~ Day 20) 독해 (2챕터)	13 어휘 (~ Day 22) 독해 (2챕터)
	18 어휘 (~ Day 30) 이디엄·생활영어 (1챕터)	19 어휘 (~ Day 32) 이디엄·생활영어 (1챕터)	20 어휘 (~ Day 34) 이디엄·생활영어 (1챕터)
	25 어휘 (~ Day 46)	26 어휘 (~ Day 50)	27 어휘 (~ Day 54)

Monthly Point

- 영어 문법 8일 완성!
- 영어 어휘 25일 완성!
- 독해 5일 완성
- 이디엄·생활영어 4일 완성

⇒ 영어 기본서 회독 완성!!

③ 월간 계획표 작성하기

④ 주간 학습 계획을 잡고 실천 여부를 체크하라(주간 계획표 활용법)

주간 계획표의 가장 큰 장점은 계획했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일별로 체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목표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적고 해당 일자별로 목표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실제로 실천했는지 여부를 해당 일자별로 기록하는데, 잘했다면 브이표(V)로, 목표치보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세모표(△)로, 아예 실천하지 못했으면 엑스표(X)로 기록한다. 계획했던 것과 실제로 한 일 사이를 자세히 보면 설정한 계획에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공부 패턴을 잃은 것인지, 나태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 일주일 내의 나의 학습 계획	
<input type="checkbox"/> 영어 어휘 1일 Day 2씩 암기	✓
<input type="checkbox"/> 영어 문법 2챕터씩 공부(기본서)	△
<input type="checkbox"/> 기출문제 단원별로 점검하고 오답노트 작성하기	✓
<input type="checkbox"/>	□
MON (월) // 4	
영어 어휘 암기(~Day 6)	✓
영어 문법 2챕터씩 공부(기본서)	✓
기출문제 풀고 오답노트 작성	✓
	□
TUE (화) // 5	
영어 어휘 암기(~Day 8)	✓
영어 문법 2챕터씩 공부(기본서)	✓
기출문제 풀고 오답노트 작성	✓
	□
WED (수) // 6	
영어 어휘 암기(~Day 10)	✓
영어 문법 2챕터씩 공부(기본서)	△
기출문제 풀고 오답노트 작성	✓
	□

④ 주간 계획표 활용법

⑤ 일일 계획표를 만들어라(일간 계획표 작성하기)

일일 계획표는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세부적이고 단기적인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수단이다. 수험생의 하루 생활은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식사, 수면, 개인위생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험생들 중에는 학원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수강 시간은 3~4시간 정도로 책정하고 이를 제외한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오전, 오후, 저녁 세 타임으로 나뉘서 한 타임마다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오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영어 단어 암기나 국어 맞춤법 규정 암기 등을 정해 놓고 매일 학습하는 것이 좋으며, 오후 공부 시간에는 학원 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내용을 복습하고 혼자 정리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다. 오후에는 공부량이 많은 시간대이므로 최소 4시간 이상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선택 과목이나 취약 과목 등을 돌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시간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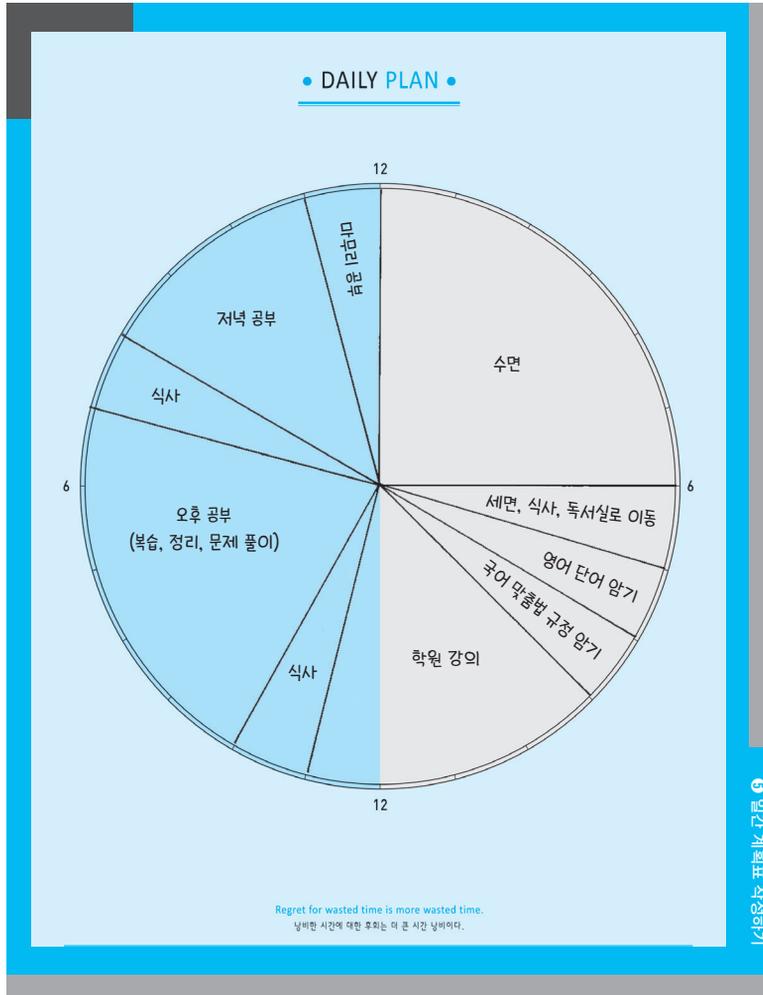
+ 자세히 보기 합격 플래너 똑똑하게 사용하기

▣ 공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자.

예를 들어 한국사 기본서를 읽고 내용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플래너에 '한국사 기본서 읽기'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기본서 20~51p까지 읽고 중요 내용 정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오늘 자신이 목표로 했던 학습 계획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피드백도 용이하다.

▣ 시간 계획을 너무 촘촘히 짜지 말자.

처음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원대한 포부와 의욕으로 빈틈없이 플래너를 작성하는 수험생들이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제대로 지키기도 힘들뿐더러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뿐만 아니라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을 상실하기 쉽다. 소소한 계획이라도 실천하고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학습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시험이 1~2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에는 평소보다 학습 분량을 강도 높게 설정해야 하므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힘이 드는가?
하지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 카를레스 푸올 -

”

5. 합격을 부르는 노트 정리법

(1) 왜, 노트 정리인가?

합격수기를 읽다 보면 한국사와 같은 과목에서 자신만의 연도별 발생 사건 노트를 정리했다는 수험생이나 수학 문제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시험 1주일 전에는 오답노트와 핵심 정리만 반복적으로 보았다는 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노트가 자신의 합격을 가능하게 해 준 원동력이 되었다는 글귀가 참 인상적이다. 그렇다면 노트 정리는 왜 해야 할까?

노트 정리는 그날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 정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해주고 노트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것은, 학습내용을 잘 분류된 서랍 칸에 정리하듯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정리와 반복, 장기 기억으로의 전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진짜 자기 것으로 소화하게 해 주는 것이다.

간혹 수험생 중에는 기본서를 열심히 읽고도 무엇을 공부했는지 당장 설명할 수 없거나 타인에게 자기가 공부한 내용의 일부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이것은 공부한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작정 책상 앞에 앉아 오랜 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부에도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험생에 따라서는 노트 정리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필기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노트 정리는 잘 정돈된, 예쁜 글씨체의,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한 노트가 아니다.

강의 시간에 강사가 말한 부분을 복기시켜 줄 수 있는 노트, 핵심어를 보면 내용이 떠오르는 노트, 나만이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노트'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합격의 길로 다가가는 효과 만점 노트 정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 노트 필기 준비물

① 노트

유선 노트, 무선 노트, 2분할 노트, 오답노트, 3공 노트, 5공 철제 링 바인더 노트 등

▣ 쓰는 목적, 과목에 따라 적절한 노트를 선택하라.

한국사, 사회, 행정학 등은 필기 내용이 많으므로 두꺼운 스프링 노트를 쓰는 것이 좋다. 중간중간 필기 내용을 끼워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지면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쓰기에는 3공 노트나 5공 철제 링 바인더 노트가 좋다. 이때 반드시 수업 일자, 과목, 단원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취합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수학이나 과학 노트는 2분할 노트가 적당하다. 개념, 예제를 나눠 쓸 수도 있고 문제, 풀이 과정 등을 분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는 오답노트 전용으로 나온 노트도 있으니 그것을 선택해도 된다.

② 필기구

검정색 펜, 파란색 펜, 빨간색 펜, 형광펜, 컴퓨터용 사인펜 등

▣ 기본색은 세 가지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노트 필기를 잘하는 학생들을 공통적으로 관찰해 보면 기본적으로 3색(검정, 빨강, 파랑)을 잘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정색은 기본적인 내용이나 일반적인 것을 적을 때 사용하고, 파랑색은 추가 내용이나 참고·부연 설명 등을 적을 때 사용한다. 빨간색은 중요 내용, 핵심, 시험에 꼭 나온다고 강의 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정리할 때 사용한다.

③ 기타

포스트잇, 플래그, 자, 수정테이프, 지우개 등

■ 기본서 단권화를 하고자 한다면 포스트잇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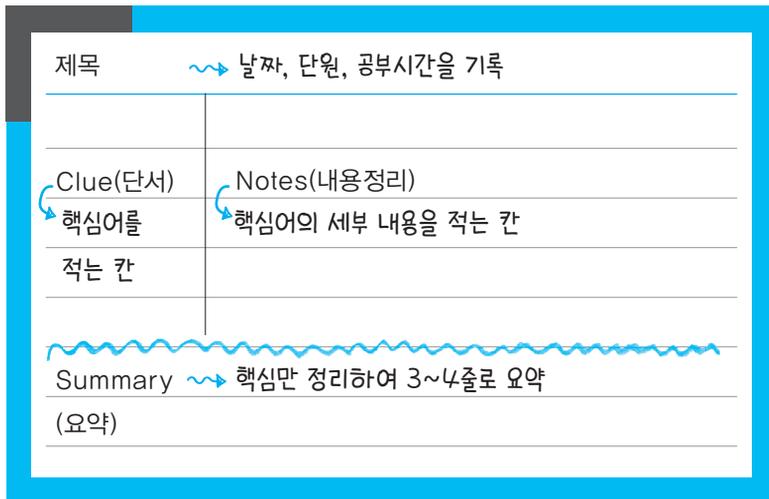
기본서에 자신만의 필기를 첨가하여 단권화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포스트잇 활용이 효과적이다. 강의 시간 중에 설명한 보충 개념이나 심화 설명을 따로 적어 해당 단위이나 내용 옆에 붙여 두고 보다가 완전히 숙지가 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떼어내도록 한다. 포스트잇은 용도에 따라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 정도 크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실전 노트 정리법

① 노트 정리의 표준~ 코넬 노트 정리법

노트 정리법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이 코넬 대학교에서 고안한 코넬 노트 정리법이다.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학 노트 형태로, 왼쪽에 여백을 두고 수직의 구분선이 그어져 있다.

○ 코넬 노트 보기



□ 제목 영역

학습 날짜, 단원명, 학습 목표, 공부 시간 등을 기록한다.

□ 내용 정리 영역

강의 시간에 강사가 설명한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한다. 여백은 충분히 두고, 번호 붙이기와 들여쓰기로 개념을 체계화한다. 판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지 말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구성한다. 나만의 기호 사용, 중요한 내용이나 강조점 등은 색펜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준다.

+ 자세히 보기 나만의 기호 예

=(같다), ≠(같지 않다), &(그리고), ∴(그러므로), ∵(왜냐하면), vs.(~대), cf.(비교), def(정의), ↑(상승, 증가) 등

□ 단서 영역

필기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를 선택한다. 내용정리 영역을 가리고 핵심 단어를 보면서 스스로 필기 내용을 설명해 보는 것도 좋다.

+ 자세히 보기 핵심어 뽑는 요령

1. 수업 시간에 처음 제시되거나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
2. 추가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거나 부연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
3. 선생님이 강조하자면, 요약하면, 핵심은~, 결론적으로~ 등 특히 강조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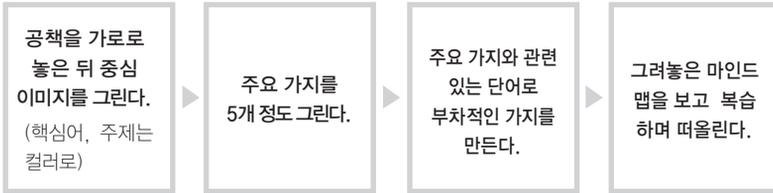
□ 요약 영역

필기 내용을 3~4줄로 요약해서 적는다. 일종의 핵심 정리인 것이다. 기억의 장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습이듯 노트 정리의 가장 중요한 점도 반복이다. 반복하여 노트 정리로 복습하면서 노트 필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필기하지 말고 문제집, 요약집 등 여러 자료를 다양하게 취합하여 노트를 보완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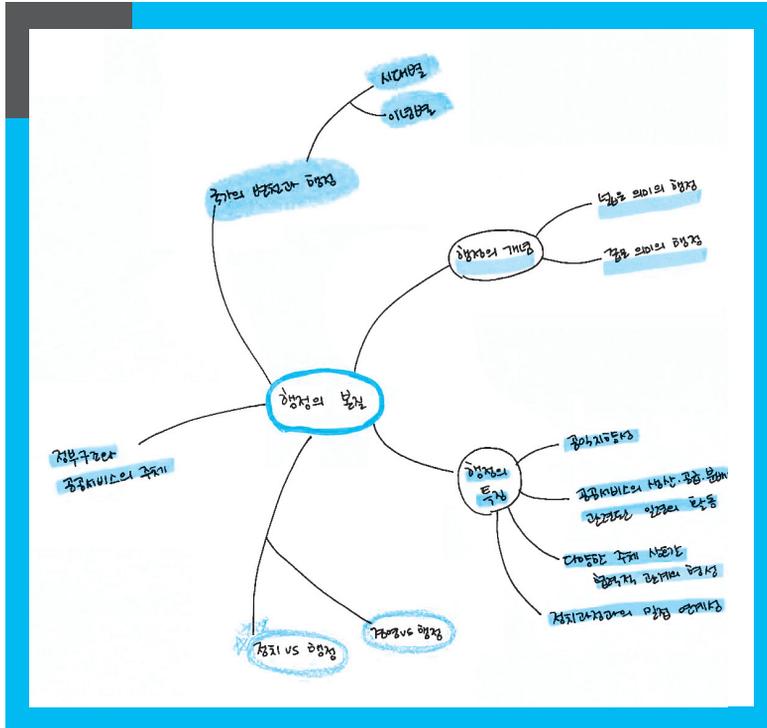
② 뇌를 깨우는 마인드맵

하나의 주제어(핵심어)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여러 개의 선을 그려 입체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트 필기법이다. 핵심어를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고 시각적 인지력이 극대화되어 뇌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인드맵 작성 방법



○ 마인드맵 작성 실제



③ 약점을 보완하는 오답노트 정리법

세로선을 중앙에 그어 T형 노트로 만들면 오답노트로 사용하기에 좋은 형태가 된다. 수학이나 물리 문제 풀이 과정을 비교해서 정리하는 형태나 오답 내용을 평가하는 형태로 활용하기 좋다.

○ 오답노트 공간 사용법

기본 개념	개념에 관련된 그림, 도표 등
핵심 내용과 개념 원리	기본 개념에 관련된 그림, 도표 기록

단원명	문제 유형, 키워드
틀린 문제: 수기 또는 복사해서 붙이기	풀이 과정과 정답 틀린 이유

○ 오답노트 작성 방법

오답노트는 주요 개념과 기본서 내용이 충분히 숙지된 상태에서 문제집을 풀고 만드는 것이 좋다. 노트 상단에 단원명, 테마를 적고 핵심 키워드나 문제 유형을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너무 많이 틀렸을 때에는 자주 틀리는 문제, 이해가 잘 되지 문제를 선별하여 옮겨 적어라(때로는 문제 부분만 복사해도 된다). 문제풀이와 답은 분할하여 적어야 답 부분을 가리고 다시 문제를 풀어 볼 때 편리하다. 코멘트 등에 틀린 이유를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문제를 잘못 읽었다든지 개념을 혼동했다든지, 계산 시 실수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적어 두면 스스로 주의해서 풀게 되므로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오답노트는 반드시 문제를 푼 날, 시험 본 날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고 바로 작성하면 맞췄지만 헛갈렸던 문제나 시험에서 특히 어려웠던 문제 등이 생생히 기억나기 때문이다.

잊지 말자. 여러분이 문제집을 덮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

효과 만점 기본서 활용법

(1) 기본서가 양단 구성인 이유?

시중의 기본서를 보면 페이지의 4분의 1가량의 공간이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양쪽을 펼쳐놓고 보면 좌, 우에 각각 4~5cm 정도의 여백이 있는데 이런 구성 방식을 양단 구성이라고 한다. 이런 양단에는 보통 참조, 용어, 핵심 정리, 학습 목표 등이 정리되어 있다.

수험생들에게 이 공간을 주는 이유는 필기 공간으로 참조하고 핵심어, 부연 내용, 해당 부분에서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 등을 적게끔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서+서브노트를 한 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똑똑한 수험생이라면 이 양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 에빙하우스의 기억의 비결



▶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10분 후 복습하면 하루 동안 기억되고, 다시 하루 후 복습하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 후 복습하면 한 달 동안, 한 달 후 복습하면 6개월 이상 장기 기억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복습의 횟수를 늘릴수록 복습할 양과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조금씩 주기적(10분→하루→1주일→한 달)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2) 양단 구성 활용 사례

한국사

* 경제제도 (경제)의
문단 - 근세 경제정책 강조
→ 재정부담을 피지배자등
입장에서 큰 부담.

* 지방정부에서의 간섭 →
① 비변사 기능 (간섭) → 식전부, 6조 기능(등록, 양전 (세출))
② 국사 이조 (양전) 전과장, 기능 (간섭)

* 지변사(知邊使) 재상 ① 지방정비
조선에서는 정무와 군무를 구분하여, 정무는 민정이나 군정 모두 의정부에서 맡아 처리하였다. 그러나 성종 때 여진족의 노략질에 대처하기 위해 종2품 이상의 변방에 밝은 무관인 지변사 재상도 참여시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제도정치의 한계유무기나

4 부세 제도의 폐단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부세 제도가 잘못 운영되면서 더
가에 대해서 전세·공납·역의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그
징수 과정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어 농민들
대해 영정법, 대동법, 흠여법

02 정치 구조의 변화

2013, 법원직 | 2012, 지

1 비변사의 설치

(1) 임시 기구 : 중종 1510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의
의 군무 협의 기구이다.

(2) 상설 기구화 : 명종 10년(1555)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
설되었다. 간섭의 확대
인사병이 증연됨.

2 비변사의 기능 강화

16세기 중엽 이후 드러난 지배 체제의 모순 등 사회 변
동의 개혁을 통해 대처하려고 노력하였다. 비변사의 기구
질서를 재정비하고자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였다.

(1) 기능 확대 :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문무 고위 관리
물론 외교·재정·사회·인사 문제 등까지 처결하는 기

(2) 구성원 : 전·현직 정승, 5조 판서(공조 제외)와 참판,
제학 등 국가의 중요 관원들로 확대되었다.

3 비변사 확대의 영향

왕권 약화 및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을 유
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19세기에는
제도 정치의 중심 기구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비변사의 기능 강화는 조선의 통치
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⑤ 비변사등록 |
록한 책으로, 167
까지의 등록이 남

4 비변사의 폐지

고종 2년 대원군에 의해 비변사의 기능이 축소(→ 폐지)되
의정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합격수기

1. 박문각 스파르타반

-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 합격하고 뒤를 돌아보니 나 혼자 합격한 것이 아니라~
- 수험은 참 괴로운 과정~ 보상과 위로가 필요

2. 박문각 기숙연계반

- 공부한 내용이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해질 것을 믿으며
-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꾸준한 회독이 중요

김*영 국가직 일반행정직 9급/광주광역시 일반행정직 9급 2관왕

1. 시험 지원 동기 및 수험 계획

전공이 행정학이었기 때문에 공기업과 공무원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주변 분들의 조언과 더불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자 생각했고,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시작해 보자 하는 생각에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 후 1년간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학원의 커리큘럼대로 공부했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① 국어(지방직:80점, 국가직:90점)

문법 부분은 최대한 기본서를 회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운 부분은 복습과 올패스의 반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진도에 맞는 기출이나 문제들을 풀어가며 개념을 정립하고 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독해는 이유진 교수님의 「독해 알고리즘」의 펜터치를 익혀 가며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침자습마다 시간을 정해 독해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의 긴장감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타 교수님들의 문제도 풀면서 여러 유형의 문제를 접하며 신유형에 대비했습니다. 특히나 교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유인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② 영어(지방직:90점, 국가직:95점)

영어는 국어와 달리 기본서 회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 독해 문제집들을 사서 하루에 20문제씩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등 하루도 빠짐없이 감각을 익혔습니다(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 특히나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건 아침 하프모의 고사입니다. 매일 시간을 재며 10문제씩 풀고 교수님의 해설을 듣는 과정을 통해 부족한 개념과 문제들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단어는 영어 스테디를 이용했습니다. 헤더진 교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유인물을 통해 일주일에 1-2번씩 스테디원들과 함께 시험을 보고 채점하며 단어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단어는 회독을 늘려가며 매일매일 외웠습니다.

③ 한국사(지방직:100점, 국가직:95점)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기에 한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많았고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암기과목이다 보니 꾸준한 회독만이 답이라고 생각했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필기노트와 유인물 등을 이용해서 복습하고 틀린 부분의 해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진도에 맞는 문제들을 풀어가며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사료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나 시험 한두 달 전 노범석 교수님께서 세워 주신 회독 커리큘럼대로 공부하며 회독을 10회독 이상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 회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④ 행정학(지방직:90점, 국가직:95점)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필수과목에 비해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번 읽을 시간은 없었고 필기노트와 기출문제집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행정학 또한 나올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회독을 통해 선지를 꼼꼼히 읽고 나올 부분을 간추려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취약 과목이라 생각했던 행정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⑤ 사회(지방직:100점, 국가직:80점)

정정 교수님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하셔서 5개년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교육행정, 사회복지, 경찰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 봄으로써 감을 익혔습니다.

3. 면접시험 준비 방법

지방직의 경우에는 스테디가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면접 교수님의 책을 읽고 시정, 이슈 등을 파악하며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특방에서 정보들을 얻어가며 면접에 대비했습니다. 국가직은 면접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노량진에서 면접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했습니다. 소수인원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강의실 앞으로 나가서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뽑아주신 경험형, 상황형, 5분 발표 리스트들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스테디원들과 매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습하며 실전에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직에서 떨지 않고 면접을 볼 수 있었고 면접관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슬럼프 극복 방법

휴학을 하고 노량진에서 자취생활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또한 공부도중 투병생활을 하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두려움과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공무원이 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며 자신감을 찾으려 노력했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5. 가족 및 고마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많은 응원을 보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6.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코로나로 인해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을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공직에서 꼭 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7. 스파르타를 선택한 이유

아무래도 자취생활을 하며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관리를 통해 규칙된 생활을 하며 온전히 수험생활에 집중하고 싶어 스파르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8. 스파르타의 관리에 대해 평하자면?

수험생이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이 중요한 수험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쓰게 해 준다는 점에서 수험생에게는 꼭 필요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9. 스파르타의 장점

우선 수험생에게 제공해 주는 문제가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주간, 월말 모의고사, 단어 시험들은 제가 실전 감각을 익히고 많은 문제에 접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듣는 교수님의 하프모의고사 외에도 타 교수님들의 하프모의고사도 제공해 주어서 영어 실력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험생에게 발붙이고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나만의 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 다른 수험생들과 공부하면서 긴장을 유지하고 다른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문제집을 푸는지 같이 정보 공유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의 자습시간을 통해 저만의 순공시간 확보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강 제공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득이하게 실강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강의 도중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스파르타에서 제공해 주는 올패스로 다시 듣고 싶은 강의나 특강을 다시 들을 수 있고, 놓친 부분 또한 보충할 수 있어서 수험 생활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격하고 뒤를 돌아보니
나 혼자서 합격한 것이 절대 아니라~

조*형 충남(아산) 일반행정직 9급/국가직 세무직 9급 2관왕

1. 시험 지원 동기 및 수험계획(계획 수립 방법 혹은 내용)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전공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공무원은 안정적이고 학벌이나 스펙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닌 단순히 시험으로 뽑는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군대에서 공무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학교를 휴학하고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실감을 듣기로 정했는데 실감도 들을 수 있고 공부하는 장소와 인강을 제공해 주는 스파르타 관리반의 시스템이 좋다고 판단하여 스파르타반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관리반에 계신 직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강사를 선택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① 국어

문법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회독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기출문제집은 정채영 교수님의 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정채영 교수님의 문학 종결자와 이유진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공부하였습니다. 정채영 교수님의 문학 종결자는 많은 작품이 실려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지만 시조만 따로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유진 교수님의 고전 시조 특강을 들었습니다. 한자는 정채영 교수님 수업에서 나눠 줬던 10분 강의 교재로 매일 꾸준히 외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이유진 교수님 수업을 들어가서 시험 직전 동형 모의

고사까지 이유진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특히 동형 모의고사는 L1 L2 로 나눠서 같은 문제를 다른 유형과 난도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제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 직전에 자신의 실력을 정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진 교수님의 동형 모의고사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꼭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영어

영어는 김세현 교수님 수업만 들었습니다. 영문법은 김세현 교수님 심화 수업을 듣게 되면 나눠 주시는 문법 프린트물이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회독하였으며 김세현 교수님 하프모의고사를 풀면서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저는 이동기 3000 어플을 통해서 외웠습니다. 문법은 기본적으로 회독을 열심히 해서 이론은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실전에서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프 모의고사를 꼭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동형 모의고사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수강하는 강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 더 나아가서 다른 학원 강사들의 문제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동형 모의고사 시준 때 박문각에 계신 세 분의 영어 교수님들과 타학원의 강사분들 문제까지 해서 총 다섯 분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③ 한국사

한국사는 특별히 한 것 없이 노범석 교수님의 수업만 잘 들었습니다. 노범석 교수님이 주신 자료로 회독을 하고, 기본서와 기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나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기본서에서 회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사 특강을 많이 듣지 않았고 회독과 문제풀이를 반복하여 이번 지방직에서는 100점을 맞고 국가직에서는 90점을 맞았습니다.

3. 면접시험 준비 방법

저는 면접 강사의 강의를 신청하고 강의를 듣지 않고 그 강의를 샀을 때 제공되는 자료를 토대로 혼자 준비하였습니다. 면접 스터디 역시 따로 하지 않았고 혼자서 말을 하는 연습만 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자료들은 대부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았고 공직관은 면접 강의에서 제공되는 기출 자료를 보고 준비하였습니다. 면접 스터디는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스터디들이 그렇겠지만 플러스가 되는 스터디가 있는 반면에 마이너스가 되는 스터디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고 싶으시다면 구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슬럼프 극복 방법

저는 초사에서 떨어지고 재시를 볼 때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기본서를 회독하기가 싫어졌는데 기본서를 읽어도 지루함만 느껴졌습니다. 또한 평소에 암기를 할 때 쓰면서 암기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펜을 들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서 회독하는 방법을 평소와는 다르게 하였습니다. 원래 선사시대부터 봤다면 저는 조선 시대부터 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흥미가 솟지는 않아도 이전보다는 조금은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 가족 및 고마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 가족들에게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공부하다가 뒤가 없다고 느낄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시험을 보는 외로운 시험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합격하고 뒤를 돌아보니 나 혼자서 합격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파르타 반에 직원분들 역시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책부터해서 자료들 그밖에 학원을 다니면서 받은 모든 편의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6.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많은 수험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느낌이 들겠지만 저는 성적은 꾸준히 하 기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한 문제에 5점인 객관식입니다. 4개의 선지 중 2개의 선지를 알고 틀리는 사람과 모든 선지를 모르고 틀리는 사람은 똑같이 -5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전에는 1개의 선지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부를 하여 2개의 선지를 아는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점이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여서 3개의 선지를 알게 되는 순간 -5점은 +5점으로 바뀌면서 성적은 눈에 띄게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공부를 하신다면 반드시 성적은 오른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7. 스파르타를 선택한 이유

제가 스파르타를 선택한 이유는 강의 선택에 자유롭고 또한 출결 관리 및 공부하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독서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독서실 같은 경우 좌석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지만 스파르타 자습실은 교실형 독서실로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본인에게 공부 자극을 주고 경쟁자들이 눈앞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파르타를 선택하였습니다.

8. 스파르타 관리에 대해 평하자면?

스파르타의 출결 관리 시스템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를 다니면서 결석을 한 적은 없지만 몇 번 지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자를 하고 문자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출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러한 문자를 받을 때마다 좀 짜증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러한 관리 때문에 단 한 번의 결석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습 시간 동안 자습실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에서 흔히 느끼는 왔다갔다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서 좋았습니다.

9. 스파르타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스파르타의 가장 큰 장점은 오로지 공부에만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고 독서실 혹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할 때 느끼는 사소한 문제들을 느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스파르타를 다니지 않는 수험생들과의 차이를 만들어 주고, 그러한 차이들이 성적에서 차이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합격 불합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은 참 괴로운 과정~ 보상과 위로가 필요,
 짊짊한 터널 속에 있어도 이 끝에 출구가 있다고 믿어야~

홍*기 광주광역시 일반행정직 9급/국가직 교정직 9급 2관왕

박문각 스파르타에 다니면서 수험 생활을 했던 1년 동안의 기간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1. 시험 지원 동기 및 수험 계획

대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진로를 결정하다가 공무원이 현실적인 직업으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공무원 9급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친형과 함께 박문각 스파르타 1년권을 끊었고, 1년 안에 합격해서 나가자는 생각으로 한달 한달 마음 상태나 공부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헤이해지지 않게 박문각 스파르타를 선택하게 되었고, 저는 이 선택이 저를 합격하게 만들어 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박문각 스파르타는 출결 체크부터 면학 분위기를 잘 조성해 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① 국어

저는 전선헤썸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재밌으시고 너무 좋아서 7~8월 기본개념 강의 때는 실감을 봤었습니다. 국어는 잘 못하는 과목 중 하나였는데 제가 문법이라는 공시의 길에서 헤매지 않게 기틀을 잡아 주셨고, 인강 듣는 내내 지루하지 않아서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문법 포인트 잡기 그리고 교재가 좋아서 정리하기에 좋았고 강의도 다양해서 필요한 부분을 쓱쓱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 공부

국어는 기출문제 공부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이나 문학은 기출문제가 파생되거나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학 작품이 나올 순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기출된 것과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문법은 문'법'처럼 암기를 통해서만 풀리는 것은 외워야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즘 경향이 문법적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보다 문법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에 더 비중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왜 이게 이것이고 저게 저것인지 한 번쯤은 이해를 꼭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어는 특히나 이론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바로 기출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론 강의에서 듣고 흩어져 있던 문법적 개념들이 문제를 풀면서 퍼즐처럼 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② 영어

영어는 따로 강의를 듣거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어서 나에게 공부하기 좋은 책들을 자주 보러 서점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는 가까운 수능 세대라 아직 몸에 영어 DNA가 남아 있어서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주관적으로 공무원 영어는 문법과 단어만 수능보다 지엽적이고, 독해 문제들은 고2 학력평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 실력을 다지고 단어와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고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공부

영어도 당연히 독해 문제는 기출되었던 것이 다시 기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출을 푸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영어 시험이 어떤 유형이고 어떤 난이도인지 파악하고 내 위치를 알기 위함입니다. 본 시험에서 독해 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을 여러 가지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도 국어같이 문법, 단어 같은 부분은 기출되었던 것이 또 나옵니다. 당연히 똑같은 문장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기출문제에서 공부했던 문법 포인트나 단어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장 가서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한국사

한국사는 노범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의 강의도 들어봤지만 사실 범석쌤만 한 분이 없습니다. 배속을 해도 깔끔하게 잘 들리고, 그 많은 양의 한국사를 나중에 필기노트 하나로만 해결해도 돼서 좋았어요.

스토리텔링과 주변 겹가지치기는 개념들도 잘 잡아주셔서 기출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을 잘 캐치할 수 있었고 시험장에서도 100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 공부

노범석 선생님께 들었던 기본 강의를 토대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점점 이론과 문제 푸는 스킬들을 쌓아 간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습니다. 기출문제 전근대사에서는 문제 푸는 데 필요로 하는 연도는 꼭 외우도록 하고 근현대사 시작점부터는 시험과 관련된 사건의 모든 연도를 외운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관련이 없는 사건에도 순서 나열을 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전후사건 고르기 문제에서도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암기 과목은 정말 기출문제 반복 또 반복입니다. 기출문제 한 번 본 사람과 두 번 본 사람, 세 번 본 사람 모두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보이는 것이 다르고 이해의 정도도 다릅니다. 어느 합격수기를 봐도 기출문제 반복은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④ 행정학

행정학 시험과목 특성상 기본서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숙지하기에는 무리가 큼니다. 하지만 다행이게도 나왔던 출제포인트에서 반복되고 기출문제 재탕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과목이 행정학입니다.

+기출문제 공부

저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1회 정독하고 기출문제에 달린 해설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살면서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보고 똑같은 선지 해설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어느새 OX를 판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되고, 그게 시험장 가서도 OX 판별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학은 정말 수험과 학문의 경계를 뚜렷하게 해야 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학이 뭔지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험 행정학은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복 또 반복해서 제대로 숙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기출문제입니다. 동형 모의고사 아닙니다. 기출문제입니다.

⑤ 사회

사회는 박문각 정정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반복했습니다. 사회도 엄연히 암기 과목입니다. 정확히 암기를 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으로 문제의 정오를 판단하게 합니다.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능의 난이도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하지만 3가지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이 부담이고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에 나온 것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 과목은 기출문제의 반복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 면접시험 준비 방법

면접시험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실강은 듣지 못하고 인강으로 대체하고, 스티마 선생님 책 하나 사서 면접 스티디원을 꾸려 같이 준비했습니다.

지방직 필기 합격하신 분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시청이나 교육청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면접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책을 토대로 준비하시면 무리 없이 잘 패스하실 수 있습니다.

4. 슬럼프 극복 방법

① 긍정적인 생각하기

수험은 참 괴로운 과정입니다.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걸어가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똑같이 캄캄한 터널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이 끝에는 출구가 있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는 정반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피폐하고 괴롭다고 느껴질 때 공부는 혼자 하지만 마음속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② 보상 심리 이용하기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가령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고장이 나는데 사람이라면 몸이나 마음이 고장이 안 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상 받고 위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의 7일 중 6일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면 하루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휴식시간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사고 싶은 것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수험에 방해되는 중독성 있는 것은 하면 안 되겠죠?

5. 가족 및 고마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 7급 준비하는 형에게도 수험 메이트가 되어 주어서 너무 고맙고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형도 이번에 국가직 7급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좋은 점수로 합격권에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6.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험 말고는 아무 생각을 안 할 정도로요.

공무원 시험은 수능과 다르게 붙으면 직업을 주는 시험이라 우린 시험에 붙으면 다시는 책을 안 펴도 됩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자기에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수험 생활을 즐겨 보세요. 물론 즐기기는 힘들겠지만 지나가면 모든 것이 미화되고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 수능 때처럼요.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만 않고 끝까지 시험장까지 끌고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기회가 있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겠죠. 이 글을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박문각 스파르타에 다니시는 분들 모두 건투를 빕니다.

공부한 내용이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해질 것을 믿으며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

최*진 경기(남양주) 일반행정직 9급

1. 왜 박문각 기숙반이었나?

휴학을 하고 일 년을 본가에서 지내면서 혼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박문각 프리패스를 끊어서 인강으로 공부를 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 점점 게을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생활엔 공부에 방해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간 절대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기숙반이었습니다. 기숙 시스템이라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숙반이다 보니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일 수 있으나 시험까지 막판 스퍼트를 올릴 수 있다면 해볼 만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듣던 인강이 박문각이어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이어서 듣는 것이 제 공부 흐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기숙반 생활은?

초반에는 여섯 시에 기상하여 준비하고 여섯 시 반이면 집을 나와 연계된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숙반에 머무는 동안 오전 하프 영어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영어 하프 수업을 들은 후 자습실로 가서 자습을 하고, 점심을 먹고, 자습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자습을 하고 열시 반이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에는 씻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열두시 반이면 보통 잤던 것 같습니다. 최소 5시간은 자려고 하였습니다. 하프 수업이 없던 날도 똑같이 자습실로 가서 하프 문제 풀듯이 영어 문제를 풀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일요일은 자습실 열고 닫는 시간에 맞춰 아홉 시쯤 나갔고 아홉 시에 집에 돌아와서 조금 더 쉬고 다음 주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수면 패턴이나 공부 패턴을 시험 날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같은 생활이었지만 딱히 질린다던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생활했던 언니들이 잘 챙겨 주었는데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주말에 가끔 맛있는 것을 먹는다던지,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음료를 사온다던지, 사육신 공원에서 같이 산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기숙사 시설도 딱히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넓은 방이 아니지만 어차피 하루 대부분은 자습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 잘 나오고, 잘 내려가고, 침대 멀쩡하고 공용 세탁기도 사는 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별 탈 없이 지냈습니다.

3. 기숙반 수업은?

오전에는 실강을 들을 수 있었고 기숙반을 위해 오후에나 저녁에 한 두 시간씩 보충 수업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교수님들 모두 열심히 해주셨고 실강을 들으니 수업 전 테스트에도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오전 강의를 실강보다는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사람 스타일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인강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져 문제풀이 실강을 할 때는 꼭 실강에 참여하여 시험을 보았고 제 실력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본강은 인강을 애용하였으나 기숙반을 위한 보충수업은 참여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숙반만 참여하기 때문에 교수님께 질문도 편하게 많이 할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들도 바쁘실 텐데 추가 수업 자료도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제공해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는 등 도움을 더 주시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4. 기숙반 관리?

우선 기숙반 관리 중 제가 가장 덕을 많이 보았던 것은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자습실에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제출하고

밤에 집에 가는 길에 휴대폰을 찾아갔는데 하루 종일 휴대폰이 없다 보니 공부에 집중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반 학생들은 매주 주간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주간 모의고사를 통해 제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과목이 아니더라도 국어, 영어, 한국사를 매주 큰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는 것도 주간 모의고사의 장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간 모의고사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숙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강생들도 함께 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내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 향상하고 있는지를 혼자서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다섯 과목을 보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틀린 부분을 확인하고 기본서를 다시 보면서 채워나가며 공부하였습니다.

5. 기타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학원 다니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줄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사람을 사귀는 것은 수험생활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같이 공부하게 되니 아침에 늦지 않게 나가게 되고, 혼자 집에 가고 싶다가도 일단 끝까지 함께 자습실에 앉아 있게 되고, 같이 시험 정보도 공유하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험기간 동안 제 자신으로부터는 별 생각 없이 사는 성격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숙반 생활을 하게 되면 평소 생활과 많이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공부하는 동안 불안한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 할 일을 꾸준히 하고,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머리를 굴려주고, 틀리면 다시 기본서 확인하며 보완하면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해질 것이라 믿으며 불안해하지 않고,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넘기며 하루하루를 반복하였습니다. 일단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 그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대로 엎어져 있지 않는 것이니까요~

황*선 인천광역시 일반행정직 9급

1. 박문각 기숙반을 선택한 이유는?

하루에 기본 10시간씩은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 스스로 저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깨닫고 저의 생활 전체가 통제가 가능한 기숙반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따로 숙소나 강의를 알아볼 필요 없이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르면 된다는 점이 특히 초시생인 저에게는 장점이었습니다.

2. 기숙반 생활은?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 개인의 능률적인 학습 또한 포용을 해주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관리나 휴대폰 관리는 철저하게 하면서 통제하는 공부 시간 동안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공부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매주 그리고 매달 이루어졌던 모의고사 역시 틈틈이 저의 자극제가 되어 좋았습니다.

3. 기숙반 강의는?

기본에 충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잘 따라오기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인 이유 역시 교수님들의 강의를 다 기본에 충실하여 과정대로 거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선우빈 선생님의 한국사 수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테마별로 암기하도록 해주신 덕에 근현대사와 현대사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었습니다.

4. 기숙반 관리는?

핸드폰을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통제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솔직히 공부하면서 몇 번이고 그만하고 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그때 제 옆에 휴대폰이 있었다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합격 수기를 쓰고 있는 일도 없었겠죠?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일일 모의고사 시스템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로 영어 과목이었는데, 매일 영어 단어와 문법에 대한 감을 조금씩 기를 수 있었습니다.

5. 과목별 공부 방법은?

① 국어

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잡았다 싶으면 문제풀이를 엄청 했던 것 같습니다. 문법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나오니까 개념 확인차 풀고, 로마자나 표기의 예외 등 단순 암기인 내용들은 개념서만 보며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 위주로 확인하며 그때 잠깐잠깐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② 영어

영어는 단어 70에 문법 30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모르는 단어를 보고 멘붕이 와서 뒤에 문법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거꾸로, 독해, 문법, 단어 식으로 풀고는 했습니다. 가장 성적 올리기 어려운 과목이니만큼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또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단어가 많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마인드로 기본 단어들부터 외워 나갔더니 올해 지방직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③ 한국사

한국사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테마별로 암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특히 문화사에 많이 약했는데, 테마별로 암기하니 좀

더 수월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근대사와 현대사의 경우 머릿속에서 비슷한 개념들끼리 묶어서 외우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연도와 인물들을 외우기가 쉬웠거든요!

6. 기숙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힘들고 외로우실 겁니다. 6시 전에 눈뜨고 12시 전에 잠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하시면 가능하실 겁니다. 저 역시 고작 1년 준비한 초시생이었고, 무려 시험 보기 두달 전까지 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두달 전이라는 시점이 돼서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학원의 지도와 교수님들의 수업을 따라가 보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대로 얽어져 있지 않는 것이니까요.

D-1 시험 전일 막판 정리법!

(1) 시험 전날에는 5과목(9급 수험생 기준)을 빠르게 통독해야 한다

시험 전날에는 아침 공부, 오후 공부, 저녁 공부 시간을 3타임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시험 전날 5과목을 전부 통독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서나 자기만의 서브노트, 오답노트 등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사항,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본인이 암기가 부족한 사항을 빠르게 훑어 나가면서 통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말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 단원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2) 시험 전날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시험 전날에는 긴장감, 압박감, 부담감으로 쉽사리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시험 전날은 되도록 일찍 일어나서 오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평소 낮잠을 자던 수험생이라도 시험 전날은 되도록 숙면을 위해 낮잠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평소보다 약 1시간 정도 이른 시간에 취침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수면제 등을 복용하지 말고 따뜻한 우유, 대추차, 허브티 등을 먹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시험장에 들고 갈 자료, 필기구, 수험표, 신분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

시험 당일에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긴장되고 정신이 없어서 꼭 챙겨야 할 자료와 신분증 등을 빠뜨리기 일쑤다. 그러므로 시험장에서 꼭 봐야 할 자료(너무 두꺼운 것은 삼가자), 필기구와 수험표, 신분증, 스톱워치 등을 미리 가방에 잘 넣어 두는 것이 좋다.

(4) 시험장까지 가는 방법(대중교통편)을 잘 확인해서 메모해 두자

자신이 배정받은 시험장까지 가는 길, 교통편은 미리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시험 당일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되도록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고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드디어 D-Day, 시험장에서 해야 할 일

(1) 시험장에는 여유 있게 도착하자

시험장에는 되도록 여유 있게 입실하는 것이 좋다.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9시 20분까지 입실해야 하는데 적어도 8시 30분 정도까지 입실한 후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여 본인이 가져온 자료를 보는 것이 좋다.

(2) 긍정적인 마인드로 합격하는 상상을 하자

시험 당일에는 불안감, 긴장감으로 심하게 떨릴 수 있다. 이때에는 가급적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나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문제는 남들도 틀리는 문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3) 개인적인 용무는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하자

화장실 등 개인적인 용무는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9급 공무원 시험은 100분의 시험시간 동안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없다.

(4) 답안지를 받으면 기본 사항(수험번호, 성명, 직렬 등)을 꼭 표기하자

답안지를 받으면 감독관의 설명이나 지시에 따라 기본 사항을 꼭 표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수험번호, 직렬, 성명은 표기 후 한번 더 확인해 보자.

(5) 문제지를 받고 나서는 시간 안배에 힘쓰면서 문제를 해결하자

시험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1년 공부가 무너지게 된다. 문제지를 받고 나서는 시간 안배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풀고 모르겠는 문제는 별표나 세모 등 자신만의 표시를 해 두고 넘어간다.

(6)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마킹을 해야 한다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반드시 답안을 답안지에 차례대로 옮겨 적기 시작해야 한다. 시험 당일엔 긴장감 때문에 평소 마킹을 빨리 실수 없이 하던 수험생도 실수하거나 틀려서 답안지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침착한 마음으로 밀려 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답안지에 마킹을 해야 한다.

전 과목 무제한 수강 박문각 관리형 올패스

언택트 시대! 맞춤형 합격 관리! 업계 최초!
학원이 직접 관리하는 캠퍼스 X 무제한 수강 올패스

더욱
압도적인
강의력·강사수

더욱
합격하는
커리큘럼

더욱
빈틈없는
콘텐츠

캠관리형 올패스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



박문각 월간
합격예측 모의고사
매월 자동 배송



반복학습의 힘!
국어, 영어, 한국사
매일/매주
온라인 모의고사



업계 최초!
밀착관리 프로그램
ON 캠퍼스 X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노량진 Live강의

박문각 올패스 하나면 공무원 합격 OK!
박문각은 합격만을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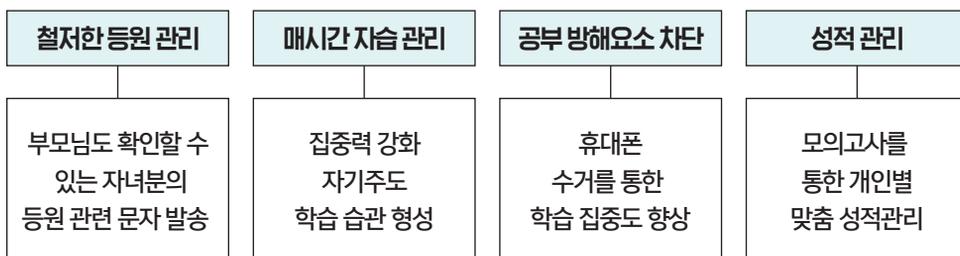
합격생 3명 중 2명은 1년 내 합격!

스파르타 실강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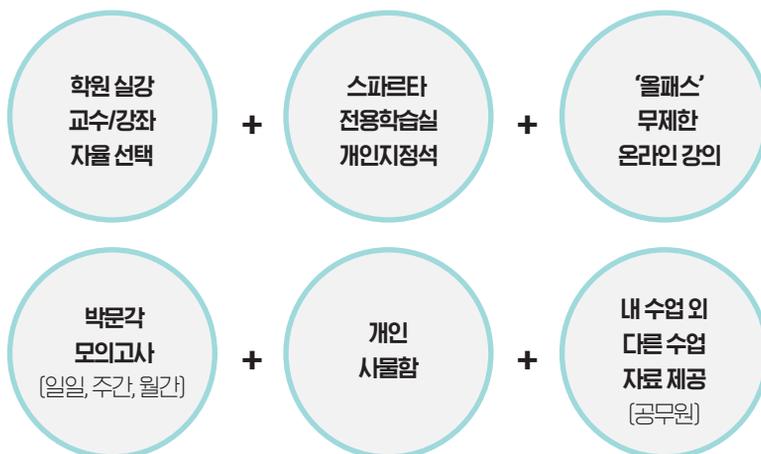
혼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순 있지만, 빠른 합격은 쉽지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뱍센 관리로 1년 내 합격을 목표로 하는 반입니다.

체계적이고 뱍센 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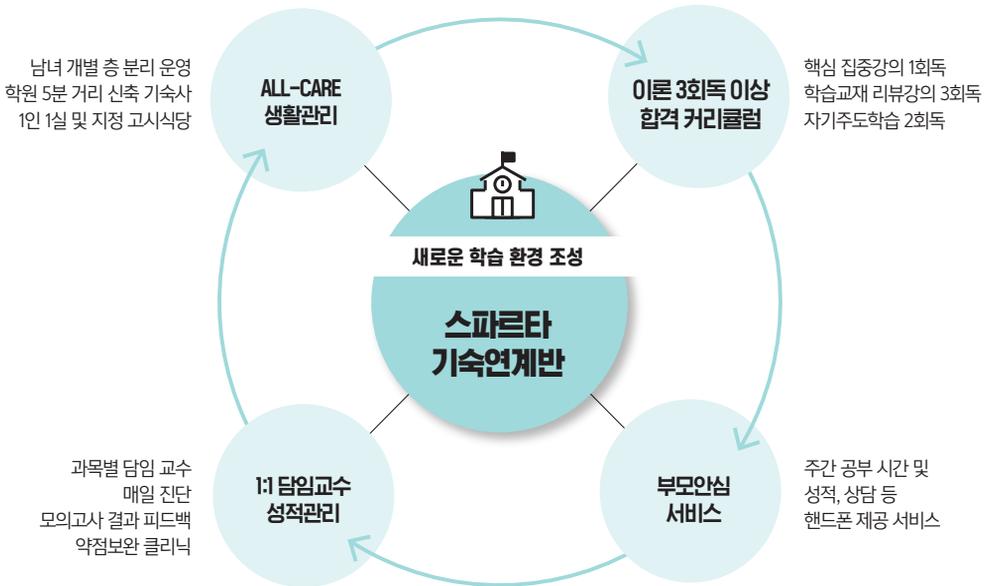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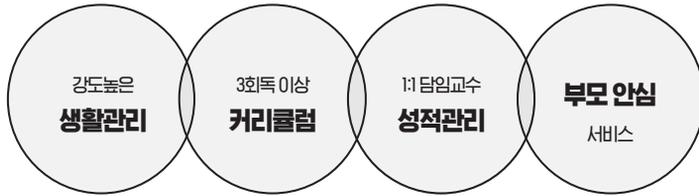
등록 기간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혜택 제공



합격생 3명 중 2명은 1년 내 합격!

스파르타 기숙연계반

전담 매니저의 24시간 학습 및 생활 밀착케어를 통해 공부습관을 바꾸고
 담임교수의 성적 피드백으로 약점을 체크/보완해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하는 반입니다.**



공무원수험의 메카 노량진에서 **50명만을 위해 준비한**
 박문각 스파르타 기숙연계반으로 **확실한 합격을** 준비하세요!

각 직렬별 모든 과목 수강 박문각 직렬별 올패스

나의 진로가 명확하다면, 직렬별 올패스가 제격!
저렴한 수강료, 빠짐없는 커리큘럼

5과목
원하는 교수선택

월간 모의고사
제공

프리미엄
관리 서비스

검증된 박문각 직렬별 올패스



교육행정직 올패스



교정직 올패스



군무원 올패스



소방직 올패스



사회복지직 올패스



세무직 올패스



보호직 올패스



검찰직 올패스

박문각은 여러분의 빠른 합격만을 생각합니다.

2022 박문각 공무원 가이드북



수험교재 및 교양서 전문 온라인 서점
박문각 북스파

LIVE 스트리밍 강의
박문각 ▶ NETclass